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9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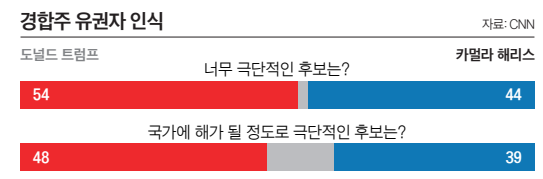
Monday, September 9, 2024 A

'통합' 대신 '두려움' 부상한 대선 ... "선거 뒤에도 진영 대결 불가피"

두 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통합이 사라진 자리는 정치가 초래할 '위기'와 '두려움'이 채우고 있다.

총격 테러 이후 공화당 전당 대회 등에서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등판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특유의 '막말 공세'를 재개했다. 서로를 극단주의로 모는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밝혔던 환경 및 기후대응 관련 공약까지 반복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에 막을 내리려도 선거 기간 나타난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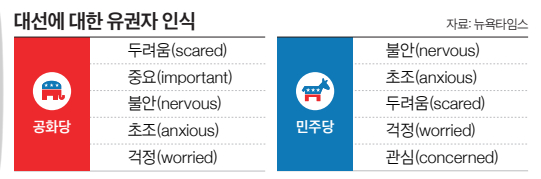


11월 5일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이민, 환경, 의료 보험 등 9개 분야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거나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가 2020년 대선 때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하겠다고 했던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법(fracking-프래킹)을 허용하겠다고 번복한 일이다. 세계적 셰일가스 산지인 펜실베이니아

를 의식한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해리스는 또 상원의원 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했던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내 비판을 가했던 남부 국경의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지로 선회했다. 이 밖에 고령자 의료보험의 전 국민 확대



[로이터]

추진, 모든 희망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일자리 제공 정책 등도 철회했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지난달 2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 정책적 관점과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측면은 내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극단적인 후보 ... '두려움'이 된 대선

그러자 해리스를 '급진 좌파'로 몰아세워 왔던 트럼프는 "해리스가 거짓말을 한다"며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7월 말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쟁이 해리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해리스가 정치적 소신을 반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런 행보를 보이는 배경엔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공개된 CNN의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54%는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답했다. 해리스를 지나친 극단주의자라고 평가한 비율은 44%였다. 유권자의 48%는 트럼프가 "국가에 위

협이 된다"고 인식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리스의 비율은 39%였다.

유권자의 과반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는 트럼프에 비해 해리스가 상대적으로 지지층을 확장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초반빙판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정치적 소신까지 뒤집는다는 해석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양극단의 두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를 '두려움'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가 민주·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 양측 모두 불안(nervous), 초조(anxious), 두려움(scared), 걱정(worried) 등을 우선순위로 사용하고 있었다. **8면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9월 금리 인하폭 불확실성 여전...시장 전망도 '혼란'

이번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폭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인하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25bp(1bp=0.01%포인트) 인하 전망이 70%로, 50bp 인하 '빅 컷' 전망 30%를 앞선 상태다.

5일까지만 해도 25bp와 50bp 인하 전망이 각각 59%, 41% 수준이었으며 6일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빅 컷 전망이 45%로 올라가

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몇 달간 더 많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빅 컷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시사하면서 시장 기대가 다시 조정된 상태다.

앞서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2천명 늘어 16만명가량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고 6일 밝혔다.

실업률은 4.2%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지만, 6~7월 고용 증가 폭은 대폭 하락 조정돼 우려를 키웠다.

7월 고용 증가 폭은 처음 발표했던 11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줄었으며, 이번 달 보고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증가 폭 3개월 이동평균은 7월 14만1천명에서 8월 11만6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5개월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JS)은 고용보고서 발표 후 확실성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실망했다면서, 고용보고서에서 확인된 일부 수정지와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통계 왜곡으로 인해 금리 전망이 여전히 흐릿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6면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뿔물 쏟는 드론' ... 우크라, 러 주둔지 공격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주둔지를 저공 비행하며 알루미늄-산화철 혼합 금속 테르밋을 녹인 물질을 투하하는 드론 작전을 펴고 있다. 섭씨 2200도에서 불타는 이 물질은 러시아군을 직접 타격하거나 러시아군을 숨겨주는 숲을 빠르게 불태울 수 있다. 이 드론은 불을 내뿜는 용을 담아 '드래곤 드론'으로 불린다. 작은 사진은 드론이 테르밋을 녹인 물질을 투하하는 모습. [호르네그룹 텔레그램 캡처]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해리스, TV토론 양날의검” “트럼프 못해도 본전”

(10일)

전문가 5인이 본 두달 앞 미 대선 “해리스, 혐오발언 등 실수 땀 역풍 지지율 변화적은 트럼프, 부담 적어”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전황, 변수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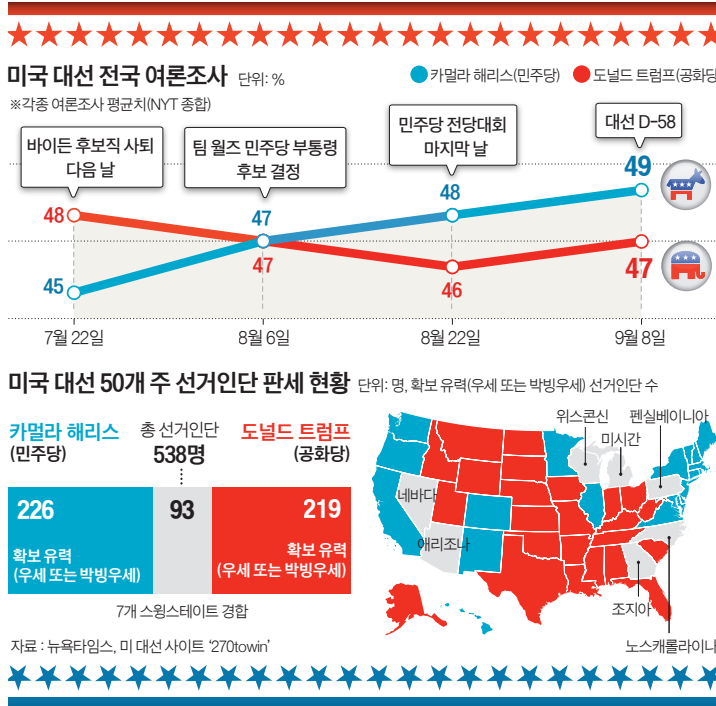
중앙일보가 7일 인터뷰를 진행한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실으면서도 승패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합주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의 경우 7일(현지시간) 기준 59일을 남겨둔 11월 5일 대선까지 여론의 흐름이 여러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뷰에는 시다 스코치폴 하버드대 교수, 종합컨

설팅기업 DGA그룹 산하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의 덴 로렌탈 전무, 공화당 출신 로비스트 샌더 루리 파트너, 미국 정치 전문가 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 정치에 오래 참여해 온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10일 첫 TV토론이 해리스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스코치폴 교수는 “TV토론은 인지도가 낮은 해리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토론 이후 추가 토론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TV토론에서 패한 후보가 추가 토론을 회피하거나, 승리한 후보 역시 토론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 설명했다.

서정건 교수는 “경합주엔



무당파 비율이 높고 이들의 20%는 향후 표심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TV토론은 트럼프보다는 해

리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석 대표는 “트럼프는 토론을 잘 못해도 본전이지만, 해리스는 잘해도 본전”이라며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사퇴 후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등했는데, 이는 작은 실수로도 지지율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트럼프에 대해서 ‘검사 대법 죄자’ 프레임 강조하는 해리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혐오 등이 부각될 경우 전국 지지율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우

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전쟁이 향후 표심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황이 악화할 경우 해리스, 반대로 휴전 등이 성사되면 트럼프에게 각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로렌탈 전무는 “전쟁 등 예상 가능한 변수보다는 의외의 변수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남은 기간 중동 국가의 트럼프 측 해킹, 불법 이민자의 돌발적 중대 범죄, 후보들의 사생활 폭로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건 교수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후백백 인종 간 강한 반발과 결집이 나타나며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성턴=강태화 특파원

펜실베이니아, 단 1%P차... 선벨트선 48% vs 48% 초박빙

(남부 4개주)

‘매직넘버 270’ 선거인단 중간점 해리스 226명, 트럼프 219명 확보

‘270’. 미국 대선 선거인단 538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매직 넘버다.

대선 D-60일인 지난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필두로 주마다 사전투표가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여기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대면 ‘진검승부’가 될 TV토론이 10일 열리면서 사활을 건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판세는 어느 한쪽의 우세를 단언하기 힘든 대접전 상황이다. 선거인단 1명에 승부의 추가 기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후보가 선거인단 269명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가능성

도 있다. 초유의 ‘반집 승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7일 미 대선 사이트 ‘270towin(270towin)’에 따르면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등 대도시를 관할하는 주를 중심으로 고정 지지층을 가져가며 선거인단 226명 확보가 유력하다. 트럼프는 텍사스 등 중부 내륙 지역과 교외·시골 등 전통적 공화당 텃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7개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 걸린 선거인단 93명을 놓고 양측이 다투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 대선은 득표율이 아닌 ‘선거인단 수 싸움’이다. 50개 주와 워싱턴DC에 인구 비례로 배분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을 선점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현재까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리스는 7개 경합주 중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인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19명)·미시간(15명)·위스콘신(10명) 3곳을 이기면 270명 과반을 딱 채운다. 이런 식으로 해리스가 당선될 수 있는 경합주 승리 조합은 20가지다. 그중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필수로 포함되는 경우가 10가지다.

NYT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1%포인트의 ‘불안한 우세’를 보인다. 해리스로선 펜실베이니아를 놓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남부 선벨트(일조량이 풍부한 남부 지역)에서 2개 주 이상을 승리해야 한다.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는 7대 경합주 중 남부 선벨트 4개 주(선거인단 49명)를 이기면 선거인단 수는 268명이 되고 여기에 러스트벨트 1곳을 가져가야 과반을 확보한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당선이 가능한 경합주 승리 방정식은 21가지다. 이 중 15가지는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전제되는 경우이며, 조지아 승리가 전제되는 경우는 12가지다. 트럼프 입장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반드시 이기고 조지아까지 이기면 당선 안정권이다.

과거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제조업 후퇴로 소외감을 느껴온 백인 남성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파고들면서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고 결국 대선에서 당선됐다.

그렇다면 경합주의 현재 표심은 어떨까. NYT의 지지율 집계 평균치에 따르면 7대 경합주 모두 최대 2%포인트 내 대혼전 양상이다. >펜실베이니아(해리스 49%-트럼프 48%) >미시간(48%-46%) >위스콘신(49%-47%) 등 러스트벨트 3곳은 해리스가 1~2%포인트 차로 박빙 우세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선벨트 4곳은 모두 해리스와 트럼프가 48% 대 48%로 우열을 가



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유권자들과 만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위스콘신주 모시니 센트럴위스콘신공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위스콘신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에릭 호브드 후보와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AP=연합뉴스]

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269명씩 나눠 가지는 초유의 동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령 해리스가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에서 이기고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를 가져가면 둘의 선거인단은 정확히 269명 대 269명이 된다. 이렇게 동률이 되는 경합주 조합은 경우의 수가 3가

지다. 바둑에서 반집 승부와 유사하게 선거인단 1명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승부가 될 수 있다. 만약 두 후보가 동률일 경우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각 주의 연방 하원의원 다수당이 1표씩 행사해 최종 대통령을 선출하며,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된다. 그런 만큼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도 중요해졌다.

위성턴=김형구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10일(화)	85-60	13일(금)	81-66
11일(수)	86-62	14일(토)	82-67
12일(목)	84-64	15일(일)	82-67

9월 9일(월) 79~5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RE/MAX EXECUTIVES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별 \$660,0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SOLD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워싱턴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식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 가까운 text message 주시면)

워싱턴사계절 걷기클럽과 함께 즐겁게 걷자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의사의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VA 한인여고생 사망사건, 범인 4년형 선고

“사법정의 실종 비판, 검찰 소극적 대응”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인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에게 고작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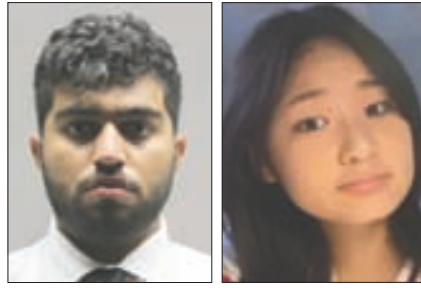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랜디 벨로우 판사는 피고 우스만 사히드(사건 당시 18세)에게 징역 4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당 2년씩 모두 4년형으로, 지난 4월 배심원단의 징역 4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피고는 지난 2022년 6월 7일 러너스 퍼트 상태에서 3명의 동승자와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도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덮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당시 15세)과 에다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즈 놀라스코(당시 14세)가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남독녀 외동딸인 리안양의 어머니 이영진씨는 “사고가 났던 날 마케팅 프로젝트를 잘 해낸 기념으로 IHOP 식당까지걸어가겠다고전화가와서 허락했었다”면서 “이 전화 10



우스만 사히드 안리안

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10분이 모든 것을 바꾸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딸과 함께 했던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기”였으며 “나는 내 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내딸은 나의 가장 훌륭한 걸작품이자 보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씨는 “배심원단이 지나치게 관대한 실형 권고안을 제출해 문제가 많다”면서 “꽃다운 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댓가치고는 너무 작아 마치 빵을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버지니아 형법 상 배심원단의 실형권고안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피고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나 악의적인 범행도 아니었고 단순히 운전할 때 최악의 판단을 했을 뿐”이었으며 “자동차 경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변론으로 일관했다.

단지 제한속도 35마일 도로에서 노란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 달리기 위해 81마일로 달린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스티브 데스카노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권고형량을 깎지 않은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육재 기자

UVA 캠퍼스 투어 중단

토마스 제퍼슨 노예 소유 논란 때문

버지니아대학(UVA)이 설립자의 노예 소유 사실 때문에 비판을 받아 이와 관련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UVA 설립자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미국 대통령은 수백여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UVA 캠퍼스 투어 가이드 학생서비스위원회는 투어 과정에서 제퍼슨의 노예 소유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느 정도 이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보수적인 동문 모임인 제퍼슨 위원회는 “투어가이드 학생서비스위원회의 불법적인 가이드가 설립자의 유산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면서 학교 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대학 당국은 이같은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제퍼슨과 관련된 투어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더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베다니 글로버 UVA 대변인은 “이 조치가 제퍼슨 위원회의 항의에 따른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서 “공식적인 캠퍼스 투어에 없는 가이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토마스 닐 총장이 1974년 졸업한 동문으로 제퍼슨 위원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퍼슨 위원회는 실제로 자신들의 로비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은 글렌 영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17명의 대학 이사 중 13명을 임명해 대학의 보수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닐 총장이 아무런 저항없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닐 총장은 “제퍼슨이 제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 저자이며 더 나아가 1807년 노예 수입 거부 법률에 서명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노예 수입이 금지된 것은 남북전쟁이 종료된 후 이기에 제퍼슨의 의지가 높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윤미 기자

‘페어팩스 치정 살인사건’ 전세계적 관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가정부 살인사건이 오는 11월 재판을 앞두고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은 틱톡의 에피소드로 가공돼 수천만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정부의 모국인 브라질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은 작년 12월 브라질 출신의 가정부 줄리아 페레즈 마가하에스(24)를 2급 살인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는 조셉 라이언(39)을 살해하고 크리스틴 밴필드(37)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리스틴 밴필드를 누가 살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3년 2월24일 페어팩스 카운티 헌터에 위치한 밴필드의 집에서 라이언을 총격 살해했다. 피고는 2021년 가정부 J비자로 밴필드의 집에 고용돼 일해왔다. 사건 발생 당일 피고는 밴필드의 4세 딸과 함께 동물원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출발했다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때마침 크

리스틴의 남편 브랜던 밴필드가 맥도날드에서 아침식사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던 차였다.

피고와 브랜던은 라이언이 집으로 침입해 크리스틴의 목을 수차례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브랜던이 1차적으로 총격을 가해 라이언을 쓰러뜨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남성이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피고와 라이언의 가슴에 총격을 가해 사망하고 말았다. 크리스틴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당국은 수사 끝에 우연을 가장한 계획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 발생 두달전 피고와 브랜던이 한 총기사격장 겸 총기판매상을 방문해 사격 연습을 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권총도 구매 사실이 드러났다. 브랜던 밴필드는 연방국세청(IRS) 경찰국 소속 요원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와 함께 뉴욕으로 밀월여행을 가는 등 불륜관계였다.

피고는 크리스틴이 사망한 이후 브랜던과 함께 안방 옷장과 침대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에서는 크리스틴의 사망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누군가 크리스틴의 랩탑 컴퓨터를 통해 비정상적



틱톡 스크린샷

성행위를 주선하고 사이트에 가입했으며, 라이언이 이 사이트를 보고 방문했다가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누가 크리스틴의 랩탑 컴퓨터에 접근했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박세용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인원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재단(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창업비용 세금 공제 10배 확대”

해리스 대선후보 새 공약 발표 현행 5000달러서 5만 달러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 스톨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창업 비용 세금 공제 확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포브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뉴햄프셔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창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스톨비즈니스를 “전체 경제의 필수 기반”이라고 설명한 해리스 부통령은 창업비용 인센티브 확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4년간 2500만개의 새로운 스톨비즈니스 창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기록한 유치 실적보다 600만 건

더 많은 수준이다. 확대안에 따르면 스톨비즈니스는 창업 후 여러 해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을 분산 신청하거나 수익 발생 후 5만 달러 전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방식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는 선거일을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적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현행 스톨비즈니스 세금 공제는 5000달러 공제 후 나머지 창업 비용을 15년에 걸쳐 분산 청구할 수 있으며 창업 비용에는 광고, 교육·훈련 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컨설팅·임원 급여, 고객·공급업체·유통업체 확보를 위한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박낙희 기자

‘국적법 족쇄’ 해결 청원, 한국 정부 거부

동부 11개 한인단체 7월 요청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해달라” 법무부 “신고 잘하면 돼” 반복 앤디 김 등 이례적 경우만 허용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내왔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는 점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해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한 절차대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국적이탈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

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뀌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국적이탈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지금부터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스낵서비스 ‘트라이더월드’에 롯데웰푸드 ‘제로’ 제품 선택



롯데웰푸드가 스낵 구독 서비스 트라이더월드를 통해 ‘제로 후르츠 젤리(사진)’를 선보였다고 4일(한국시간) 밝혔다. 트라이더 월드는 매달 세계 과자 10여 종을 소개하는 서비스로, 월평균 구독자는 약 1만 명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5월에는 트라이더월드 구독자 꾸러미에 아몬드 뼈빼로를 넣은 바 있다. 지난달 구독 박스에

포함된 제로 후르츠 젤리는 설탕과 당류, 색소를 넣지 않은 제품으로, 기존 젤리와 비교해 열량이 25% 정도 낮다.

롯데웰푸드는 최근 대체당을 활발히 도입 중인 미국 시장에서 제로 후르츠 젤리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씨 “친부모님 전 잘 있어요”

1985년 7월9일생 인천 중구 출생 더 늦기전에 친가족 만나고 싶어

“나이 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친부모를 만나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입양 한인 에릭 레이네어트(한국명 강수창·39) 씨는 5일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아내와 6개월 된 딸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강씨는 1985년 7월 9일 오후 7시13분 인천 중구 성에의원에서 태어났다.

강씨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친모는 그가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강씨는 보육원인 명성원을 거쳐 대한사회복지회에 입양 의뢰됐고, 같은 해 11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강씨는 “양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오래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친가족을 궁금해 하는 것처럼 친가족도 나에게 대해 궁금해 하고 찾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왔다”며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친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입양 한인 강수창 씨(오른쪽)와 그의 가족.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 제공]

코로나 백신 접종 무보험자는 200불

연방정부 지원자금 소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자 보건당국은 최신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무보험자가 백신을 맞으려면 약 2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bc7뉴스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19백신 지원자금 조기소진으로 무보험자 대상 무료 백신접종 혜택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당초 백신 지원자금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의회 등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중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정부 설타운

을 막는 차원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자금 64억 달러를 삭감한 바 있다. 또한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무료접종 예산도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약 2500만 명이다. 무보험자가 코로나19 최신 백신을 접종하려면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최신 백신을 본인

부담금 없이 맞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주범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KP.3 바이러스’다. KP.3 감염 증상은 ‘인후통, 두통, 발열, 기침, 미각 또는 후각 상실’로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큰 차이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피하고, 되도록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손을 자주 씻기, 손세정제 사용, 실내 마스크 착용, 최신 백신접종 등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이달 말부터 웹사이트(COVIDtests.gov)를 재개설해 무료 코로나19 감염 테스트기(1인당 4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적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프린스턴, 2년 연속 최고 대학

WSJ, 전국 대학 순위 발표
 밥슨칼리지·스탠퍼드 2·3위

2025년 최우수 대학 순위

순위	학교명	유형	주	점수
1	프린스턴	사립	뉴저지	92.3
2	밥슨칼리지	사립	매사추세츠	91.9
3	스탠퍼드	사립	캘리포니아	91.6
4	예일	사립	커네티컷	89.3
5	클레어몬트 맥케나칼리지	사립	캘리포니아	89.2
6	MIT	사립	매사추세츠	87.4
7	하버드	사립	매사추세츠	86.2
8	UC버클리	공립	캘리포니아	86.1
9	조지아 공과대학 (메인캠퍼스)	공립	조지아	85.8
10	데이비스칼리지	사립	노스캐롤라이나	85.6

자료: 월스트리트저널(WSJ)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25 전국 대학 평가에서 프린스턴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졸업률 ▷졸업생 급여 ▷학습 시설 ▷진로 지원 ▷수업 질 ▷다양성 ▷동문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 92.3점을 받은 뉴저지주의 프린스턴대가 1위를, 91.9점을 받은 매사추세츠주의 밥슨칼리지와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퍼드대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1위에 오른 프린스턴은 대부분의 주요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졸업률은 순위권에 오른 모든 대학 중 가장 높았으며, 진로 준비역시 학교의 영향력 있는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밥슨칼리지는 신입생 때부터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밥슨의 커리큘럼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최대 3000달러의 대출을 받아 입학 후 첫 두 학기 동안 그룹으로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필수 경영 수업 등의 실무 학습 기회가 포함돼 있다.

상위 10위권 대학에 공립대학 두 곳이 포함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캘리포니아주의 UC버클리와 조지아주의 조지아 공과대학(메인캠퍼스)이 올해 10위권에 들었는데, 지난해에는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공립대학이 없었다.

한편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 위험 관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시즌인 올해, 프린스턴과 예일의 아시아 입학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프린스턴이 발표한 2024~2025학년도(Class of 2028)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아 입학생 비율은 23.8%로 2023~2024학년도 26% 대비 2.2%포인트 떨어졌다.

윤지혜 기자

패스트푸드 업체들, 저가 경쟁 가속화

던킨 등 업체 8곳, 2~6달러선
 아이홈 5달러 무제한 팬케이크
 웬디스 3달러 아침 식사 선택
 소비자 호응에 프로모션 연장

던킨을 포함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저가 메뉴 전쟁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소비 전문가들은 초과 저축이 마르고 수년 동안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을 줄이면서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저가 메뉴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맥도날드의 올 2분기 매출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KFC·타코벨의 모회사인 약브랜즈 매출도 1% 줄었다. 스타벅스 역시 동일 매장 기준 북미 매출이 3% 내려앉았다. 한시적으로 저가 프로모션을 시작한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소비자 반응이 나쁘지않아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다른 조치없이 지속 중이다. 5일 현재까지 저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업체와 메뉴를 정리해봤다. <표 참조>

▶**웬디스**
 웬디스는 지난 5월에 론칭한 3달러 아침 식사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다. 소시지치즈 잉글리시머핀과 에그치즈 잉글리시머핀 중 1팩·소시지비스킷과 에그앤치즈 비스킷 중 1팩·웨이감자·핫 커피가 제공된다. 또 온라인 계정을 처음 만든 고객은 10피스 너깃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달러짜리 비기백(Biggie Bag) 콤보를 구매하는 자사 앱 사용자 대상 프로모션 1개를 무료로 주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저가 메뉴 현황 (9월 5일 오전 10시 기준)

업체명	메뉴 구성	가격(\$)
맥도날드	맥더블/맥치킨 샌드위치·치킨너깃 4조각·감자튀김·음료	5
웬디스	소시지치즈잉글리시머핀/에그치즈잉글리시머핀·소시지비스킷/에그앤치즈비스킷·감자·핫 커피	3
KFC	치킨 2조각·매시드포테이토·비스킷	4.99
버거킹	샌드위치(3종류 중 1택)·치킨너깃 4조각·감자튀김·음료	5
아이홈	무제한 팬케이크	5
타코벨	찰루파수프림 타코·비피5레이어부리토·더블스택타코·칩(나초치즈소스)·음료	7
던킨	해시브라운·베이컨에그치즈 샌드위치·커피(미디엄사이즈)	6

자료: 각 업체

▶**KFC**

KFC도 지난 4월 '테이스트 오브 KFC 딜'을 시작했다. 오리지널 치킨 2조각과 매시드 포테이토, 비스킷으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4.99달러다. 이외 매주 화요일에는 자사 앱 사용자 대상 치킨 8조각을 10달러에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두 프로모션 모두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버거킹**

버거킹은 샌드위치(3종류 중 1택)·치킨너깃·감자튀김·음료를 5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벤트 종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3달러 이상 주문 시 임파서블 와퍼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날짜에 따라 추가 증정 제품이 바뀔 수 있어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이홈**

아이홈은 오는 15일까지 5달러에 무제한 팬케이크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메뉴 주문 시 버터밀크 팬케이크 5장을 먼저 제공하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2장씩 추가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매장 방문 시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데니스**

데니스는 5.99달러부터 시작하는 '올 데이 다이어 딜'을 제출했다. 수퍼

슬램, 스크램블드에그와 체다브레이크 치즈버거, 무제한 팬케이크 등 총 6개 메뉴로 구성됐다. 이외 업체는 '2달러, 4달러, 6달러, 8달러' 메뉴도 마련했다. 팬케이크 2장을 2달러에, 프렌치토스트 2장은 2.49달러에 즐길 수 있다.

▶**타코벨**

타코벨은 7달러 '릭스 크레이빙 박스'를 지난 7월에 내놨다. 이 메뉴는 찰루파수프림 타코, 비피5레이어 부리토, 더블 스택 타코, 칩과 나초치즈소스, 음료가 포함된다.

▶**던킨**

던킨 역시 6달러 메뉴를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메뉴는 해시브라운, 베이컨 에그치즈 샌드위치, 미디엄사이즈 커피로 구성됐다.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맥더블 혹은 맥치킨 샌드위치에 치킨너깃 4조각·스몰 사이즈 감자튀김·음료를 5달러에 판매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을 내놨다. 자사 앱 이용 고객 한정 1달러 이상 구매시 라지 사이즈 감자튀김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기존의 8월 만료 계획과는 달리 업체는 저가 프로모션을 지속하고 있다.

서재선 기자

전국 1800만 가구 “배 굶는다”

팬데믹 이후 급식 지원 끊겨
 '기아 상태' 100만 가구 증가

식품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굶어야 하는 가구가 18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4일 농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3.5%인 1800만 가구가 기아 상태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만 가구가량 늘

어난 수치다. 특히 1800만 가구 중에서 680만 가구는 기아 상태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됐다.

기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1년부터 증가세로 바뀌었다.

당시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및 급식 지원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농무부는 지난해 기아 상태에 놓인

가구 수가 늘어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급식 등에 쓰이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의 문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한 연방 의회를 비판했다.

빌색 장관은 “굶주리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비영리 단체

인 '얼라이언스 투 엔드 헝거(AEH)'는 성명을 통해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근절할 수는 없다”며 “아동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연방 차원의 급식 및 식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약소통)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BS,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조지아 고교 총격 직전 경고 있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 모친이 아들의 범행 직전 학교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어머니 마시 그레이는 범행 당일 아침 학교에 전화해 상담 담당자에게 “극도의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마시의 자매이자 콜트의 이모인 애니 브라운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가족 전화 요계제 통화기록 등에 따르면 마시는 총격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인 4일 오전 9시50분께 학교에 전화해 약 10여분간 통화했다.

마시는 총격이 발생한 뒤 브라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고등학교의 학교 상담사에게 알린 게 나다. 그들에게 이 건 극도의 비상 상황이며 곧바로 가서 (내 아들을) 찾아서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사법 당국자도 마시가 사건 직전에 학교에 전화를 건 사실을



애틀랜타 인근 고교 총기난사로 4명 사망·총격 용의자는 14세 학생.

확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총격범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아침 아들의 학교에 전화를 걸게 된 계기나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정황은 총격 사건 당일 아침에 학교 관계자들이 총격범과 관련해 우려를 감지했으며, 총격 직전 몇 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WP는 전했다.

브라운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그레이의 가족과 학교가 그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내용도 있었다고 WP는 보도했다. 브라운은 친척들에게 그레이가 “살인

과 자살 총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라운은 앞서 WP와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수개월 전부터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주위 어른들이 그 아이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기록에 따르면 그레이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남편이자 총격범의 아버지인 콜트 그레이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레이 부부는 2022년 살던 집에서 퇴거당했으며 별거에 들어갔다. 총격범 콜트는 이후 아버지와 다른 집에서 살았으며 남동생 두 명은 어머니와 함께 조지아주 피츠제럴드의 외가로 들어갔다.

폴트 그레이는 지난 4일 자신이 다니던 애틀랜타 인근의 아팔라치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초강력 태풍 '야기'로 쓰러진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 남성. 필리핀·중국을 거쳐 베트남 북부를 강타한 야기로 베트남에서 14명이 숨졌다. (EPA-연합뉴스)

수퍼태풍 '야기' 중국·베트남 등 강타

초강력 태풍 '야기'가 중국과 베트남·필리핀을 강타하며 피해가 속출했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당국은 전날까지 야기로 인해 4명이 사망했으며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주택 침수 등으로 12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한 야기는 중심부 풍속 시속 240km로 위력을 키워 이날 밤 광둥성에 다시 상륙했다. 하이난성과 광둥성은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휴업, 휴교령으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멈춘 상태다.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통신 두절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한 광둥성 주민은 웨이보에 “아파트 창문이 뜯겨나갔다. 바람이 너무 세다”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아파트 창문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건물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집 안까지 들이닥친 강풍에 주민들이 문틀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강풍에 공장 지붕이 날아가거나 길에 멈춰서 있던 트럭이 통제로 날아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유됐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바람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올라왔다.

7일 최대 풍속 시속 166km로 베트남 북동부 광닌성 해안에 상륙한 야기로 베트남에서는 1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항구에 정박해있던 선박 여러 척이 바다로 휩쓸려 갔고, 이 과정에서 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강풍과 폭우에 지붕이 무너져 생명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수도 하노이 등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졌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주택 다수가 파손됐다. 필리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됐다. 장구술 기자

동물원 30년 러브스토리...후손 230마리 두고 남편 펭귄 하늘로

메릴랜드주 한 동물원의 최장수 아프리카 펭귄이 후손 200여마리를 남기고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P)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7일 보도했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동물원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그리디 씨’(Mr. Greedy-사진)라고 불리던 ‘821번’ 아프리카 펭귄이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로 지난달 27일 인도적 방법으로 안락사됐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그리디 씨가 아프리카 펭귄의 평균 수명 18세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며, ‘그리디 부인’(Mrs Greedy)이라고 불린 암컷 아프리카 펭귄 ‘832번’과의 사이에서 5대에 걸



펭귄 생존 계획(SSP)을 통해 230마리라는 엄청난 수의 후손을 남김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펭귄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 서식하는데 남획과 해양오염에

처 후손 230마리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 동물원은 “그리디 씨는 오랜 삶에서 동물원·수족관 협회의 아프리카

다른 먹이 부족 등으로 최근 20년간 개체 수가 75% 감소했다. 그리디 씨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아프리카 펭귄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펭귄이 30년간 해로운 배설물 그리디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들은 미국 전역의 동물원에 흩어져 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손은 28세로 다른 동물원에 있으며, 같은 메릴랜드 동물원에 5대째 후손인 ‘올리브’ 등 몇 마리가 있다.

그리디 씨와 그리디 부인은 1991년 앞에서 깨어난 동갑내기 1992년 메릴랜드 동물원으로 왔으며 생식 연령에 도달한 1994년 짝을 이뤘다.

“20대 딸에게 집착한 50대 남성” 스토킹 끝에 살해 후 도주

미국의 한 50대 남성이 성인이 된 딸을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7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최근 유타주 투엘 주민인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마르베야는 아버지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이 심해지자 며칠 동안 호텔에서 묵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딸에 대한 마르

티네스의 스토킹 행위는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중순 마르베야가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마르베야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마르베야가 연인과 함께 있는 곳을 찾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의 본성이 가깝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르티네스의 방에서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했다.

지난달 1일 마르베야의 시신이 집에서 발견된 뒤 마르티네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으나, 그는 이미 텍사스로 날아가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 1면 '혼란' 에서 이어집니다

블룸버그통신도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연준 인사들이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KPMG의 다이앤 스윙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이 빅컷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일부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25bp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100달러 지폐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선불리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

TS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첫 인하부터 빅

컷에 나서기는 꺼릴 것이라고 봤다. 이번 달 50bp 인하 시 경기 침체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번 달 25bp 인하 시 다음달에는 FOMC 회의가 없는 만큼 11월 FOMC 회의 때까지 고용 둔화에 따른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4일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25bp 인하한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 MD · 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와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UCKOO



한가위처럼 풍성한 쿠쿠 BIG SALE

기간 8.29.2024 - 9.26.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9월 내 설치

일시불구매시

최대 30% OFF

2건 이상시

\$150 상당
공기청정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렌탈 제품 특별 혜택

전 제품 다운페이 \$100 OFF &
특별 사은품 증정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1건만 해도 사은품 증정
2건 이상 시 더 특별한 사은품이!



*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안마의자 일시불/렌탈 시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3D제품의 경우 할인율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모든 게 걸렸다” 해리스는 오답노트 공부, 트럼프는 큰소리

“토론에 모든 게 걸려 있다(The debate is everything).”

프랭크 린츠 미국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난 2일 CNN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오는 10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박빙인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간 TV 토론이 현직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토론 주최 언론사와 토론 방식 등에 대한 양 캠프의 이견으로 대선 전 추가 토론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이번 토론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ABC 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은 상대방이 발언할 때 마이크를 꺼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두 후보자는 질문에 답할 시간 2분, 반박할 시간 2분, 상대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대응할 시간 1분을 갖는다.

해리스가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트럼프의 공세에 ‘말려 들지’ 않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의 토론 참패 사례가 있는 데다 대선 토론을 일곱 번이나 치른 트럼프에 비해 해리스의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NBC 방송은 “해리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트럼프의 인신공격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어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미네소타주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8월 초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이들은 10일 TV 토론에서 격돌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미네소타주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8월 초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이들은 10일 TV 토론에서 격돌한다.

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리스는 ‘트럼프 경험자’의 오답 노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CNN은 “해리스가 가진 이점 중 하나는 트럼프와 토론에서 직접 맞붙었던 2명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조언”이라며 “바이든과 클린턴의 참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리스가 지난 달 벌인 대선 모의 토론에서 트럼프 역을 맡은 건 클린턴의 대변인이었던 필립 라인스 전 국무부 부차관보다. 그는 2016년 대선에도 트럼프 역할을 맡으며 클린턴과 모의 토론을 벌였다.

트럼프로부터 음모론과 막말을 유도해 ‘역풍’을 노리는 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해리스는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의 말실수를 이끌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회자되도록 하는 것도 전략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측은 틱톡이나 X(옛 트위터) 등에서 공유될 만한 선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트럼프는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 자체를 주지 않으려 한다. 평소처럼만 해도 해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지난달 26일 버지니아 이든센터에서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TV토론)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 내 삶 전체에 걸쳐 토론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토론에서 바이든을 압도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다시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 선거 캠프는 바이든과의 첫 토론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토론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시즌’ 일 뿐”이란 주장을 펼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해리스가 내세운 공약이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해리스 역시 갖고 있다는 논리를 펼 거란 얘기다. 로이터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 불법 이민, 정부 지출 확대 등을 건드릴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때보다 바이든 임기 중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가 네거티브 행보를 멈추고 해리스를 존중할 것이라 예상 밖의 전망도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해리스를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인도계이자 흑인인 그의 인종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리스가 성(性)적 거래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평가하는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론에선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CNN은 “트럼프는 해리스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가 여성이기에 바이든과 같은 공격을 받더라도 대중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인 낙태권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가 린츠는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많은 여성 유권자를 잃었다. 정책 때문이라면 그에게 투표했을 여성들이 그의 페르소나(인격체) 때문에 표를 주지 않았다”며 “해리스를 무례하고 불쾌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연월일	주요 일정
2024년 9월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첫 TV토론 (ABC 방송 주최)
10월 1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츠·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첫 TV토론 (CBS 방송 주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43세’ 고이즈미, 일본 총리 출사표… “자위대 설립 근거 명기 개헌” 승부수

전 환경상, 고이즈미 전 총리 차남 이시바 등과 총리 유력 후보 꼽혀

일본의 차기 총리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6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위대 설립 근거 명기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현재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다.

이날 회견장에 푸른색 넥타이와 남치 문제를 상징하는 블루 리본 배지를 달고 나타난 그는 1시간이 넘도록 회견을 진행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경제개혁 등을 통한 “강한 일본”으로의 회귀를 강조했다. 자민당은 오는 27일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구조로, 이번 자민당 선거엔 그와 함께 여론조사 1위를 다투는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6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67) 전 자민당 간사장 등 6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82)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부친의 뒤를 이어받은 세습 정치인으로 꼽힌다. 28살에 정계에 입문해 환경상을 지내면서도 정치색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보수색을 드러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전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자위대의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영해,

영공,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위대, 자위관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국에 재해가 발생해 현장에 가는 자위대, 자위관은 우리 헌법에 적혀있지도 않다.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에는 자위대 설립 근거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총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정상 이오가는 ‘서해 외교’를 재개하는 등 개헌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는 물론, 대만 해협을 놓고 충돌 중인 중국과도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그는 “지금껏 매년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어왔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도쿄·김현에 특파원

▶1면 ‘통합’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두려움이 된 선거의 의미에 대해 ‘관심(concerned)’이라는 표현을 쓴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중요(important)’라는 보다 강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퓨리서치 센터의 정치연구 책임자 캐럴 도허티는 NYT에 “이번 대선을 위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대중이 많아졌다”며 “양쪽 모두 작은 실수나 정책적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유권자들은 이를 더 확대 해석하며 예상외로 큰 규모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도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결합주에 대한 양측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종의 ‘갈라치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마스 슈워츠 밴더빌트대 교수는 본지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270 대 268, 또는 275 대 263의 초박빙의 승부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로버트 슈멜 노터데임대 교

수도 “지난 대선에서 이미 대선 불복과 의회 폭력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4년 전보다 더 강한 진영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미국이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불’로 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매우 위험하고도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양극화 최소 10년”… 한국엔 외교 과제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관련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심화한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더스코치폴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2년의 선거에서 전국 기준 46%대 득표로 당선과 낙선을 기록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도 47%가 상한선이 될 것”이라며 극단적 진영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갈등의 골이 환경, 노동, 인권 등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양극화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될 때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이리랑

건강 복지센터

아버님! 어머니님!

애(愛)

정(情)

효(孝)

사랑
순수한 마음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

The Best Place for your best life



NEW MANAGEMENT

장두석 회장 새 경영진 인사드립니다! 이선옥 원장

문의: 410-730-9740 **센터 운영 시간 월-토 오전 8시-오후 2시**

www.aamdc.org Mail: ariranginfo@gmail.com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핵확산 저지 IAEA처럼, 딥페이크 막을 국제기구 필요”

(국제원자력기구)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하는 것은 물론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내놔다. 14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종인(67) 고려대 명예교수는 “AI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도 자율 규제와 적극적인 사후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학을 전공한 임 교수는 국내 1세대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꼽힌다. 2000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을 신설해 15년간 원장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맡은 데 이어 올해 1월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버특보로 임명된 뒤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그를 만나 딥페이크와 AI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자율 규제만으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딥페이크는 이미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었다. 사이버 공간이란 특성상 정체를 숨기기도 쉽다. 따라서 공격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한 뒤 사건 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도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딥페이크도 같은 맥락이다. 딥페이크의 온상으로 불리는 플랫폼을 규제만 해서 피해 줄이기 어렵다.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되, 아동 성착취물 등 위법성이 있는 콘텐츠를 명확히 규정해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AI 수준 6개월마다 두 배씩 좋아져

- 텔레그램도 혐조할 뜻을 밝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공식 채널에 올라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적 대화방이 훨씬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방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삭제 요청에 응한 건 공식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하며 딥페이크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였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국내법이 선거법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후 내 삭제 조치됐다. 텔레그램 등 포털과 플랫폼의 딥페이크 삭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관련 법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빅테크의 성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근 ‘초강력 딥페이크 규제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도 불법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딥페이크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경우엔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 주의회가 마련한 법안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일찍이 관련법을 만들어 AI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우리는 성착취물이 큰 문제지만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미국의 딥페

이크 관련 피해액이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했을 정도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200억 달러)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딥페이크로 조직 내 고위인사를 가장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내 보안망에 접근해 주요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각국이 내놓고 있는 딥페이크 규제법의 경우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만큼 좀 더 정밀한 보안을 필요한 상황이다.”

- 미국에선 딥페이크 기록물에 식별 의무를 부과했는데.

“워터마크는 기술적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현재 AI 앱을 이용하면 단 7초 만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워터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면 이를 제거하는 AI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면 된다. 딥페이크도 암호 해독과 마찬가지로 ‘참과 방패’의 싸움인 셈이다.”

-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올 초 노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연행되는 까저 영상이 유포됐을 때 해도 입모양이 안 맞다는 지적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하는 허점이 쉽게 보였다. 그런데 최근 여러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앱이 만든 영상을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AI 수준은 6개월마다 두 배씩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좋아진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현재 탐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수개월 만에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딥페이크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오늘 탐지에 성공해도 내일은 실패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는 297건으로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였다. 경찰은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더욱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 딥페이크 피해자에 한국 연예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최근 K컬처의 높은 인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다 보니 딥페이크에도 자주 연루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든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AI가 워낙 급속도로 발전한 탓에 윤리 교육 등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다 보니 호기심에, 장난으로 범죄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시급히 병행돼야 할 때다.”

지난달 유엔에선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유엔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사이버 분야 협약으로, 특히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한 각국의 ‘형사’ 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요건과 절차와 관련해 국가들 사이에 통일된 법제를 마련할 기준도 설정하도록 했다. 이 협약은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AI 성공 도입 땐 경제 효과 연 300조 유엔 차원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임 교

수는 “이번 협약을 위해 세계 각국이 2022년부터 2년 넘게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며 “딥페이크 등 글로벌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지구촌 협력을 미룰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필수라는 입장인데.

“국제사회가 20세기 최대 현안이었던 핵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발족했듯 오늘날 지구촌 과제인 사이버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다 강력한 권한과 결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엔 국경이 없지 않다. 현재 한·미 양국이 사이버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인력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 공조를 넘어 지구촌 단위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과 AI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만간 모든 분야에서 AI 탑재가 일상화될 텐데, 우리가 먼저 모델이 될 만한 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AI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AI 활용도가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AI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AI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AI가 국내 산업 전반에 성공적으로도 입될 때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300조원에 달한다. 마침 이달 하순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개 정부 부처 장관과 산학계가 두루 참여하는 ‘국가 AI 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두루 포괄하는 균형 잡힌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허정연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극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신원구원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크레딧카드
결제 환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마음까지
 넉넉하게
 풍성한
 행복이 보내세요



러브핸드 홈헬스 & 노인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오늘 수시모집 시작인데, 의협 “올 의대증원부터 백지화”

의료계는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2025~2026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되는 상황이라 의료계가 내건 조건은 현실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8일 “2025~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우선 (2025년 입시를) 멈추고 의료 현장부터 정상화해야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 붕괴를 야기한 부분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사태가 회복된 이후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제대로 논의해서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증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정원)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 입시를 강행하더라도 도저히 그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들 대상 초음파 연수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연수강좌에서 초음파 시연을 보는 사직 전공의들. [연합뉴스]

의대 교수단체도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전제로 ‘2025년 증원 백지화’를 내세웠다. 김성근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외교협) 대변인은 “2025년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버리면 의료계에선 누구도 대화 자리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원래 정원(3058명)대로 뽑고, 2026~2027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자

연스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협생 혼란 우려에 대해선 “포항 지진 때 수능을 2주 미뤘고, 과거 한의대 집단 유급 때도 이듬해 정원의 30%를 줄인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사들일 내 놓지 않았다. 지난

달 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시작한 전공의는 “2025년도 정원 백지화 정도는 돼야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 (병원에) 들어갈 전공의는 다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구하거나 막에 받쳐서 그냥 갈 데

까지 가보자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화에 앞서 대통령부터 사과하라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여·야·정 협의체에 관한 입장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은)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 달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는 글을 남겼다.

의대생·전공의·교수 등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이들을 이끌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의협 회장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전공의 단체 대표 역시 대다수 전공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표성 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예스터·남수현 기자

용산, 협의체 구성 당에 일임... “의료계도 대화에 나와달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외나무다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문제 해결의 우회로를 찾기 위해 간간히 손을 쓰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의사 단체가 합류하지 않으면 일단 자리를 비워둔 채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의사 단체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야·정이 먼저 협의하면서 의사 단체와 계속 대화 채널을 가동해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여·야·정이나, 여·야·정이나 하는) 순서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취지가 중요하다”며 “야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최대한 의료계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는 시작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통화로 논의했다”며 “내일 국회의장-원내대

표 회동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체 구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정 각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사 단체가 단일 참가가 없는 만큼, 의사협회·전공의협회·의대교수협의회 등에 1명씩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 단체들조차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협의체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를 띄우지도 못할 경우엔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의사 단체를 아우르는 4자 협의체 출범이 순조롭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도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일부 의사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관(조규홍·박민수)의 경질도 요구 중이다. 그러자 정부 내의 유화적인 기류도 다시 모습을 감췄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자 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

내대표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용산 내부에서도 “증원 유예까지 포함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곧이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학 수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계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며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장·차관과 수석을 경질하는 건 의료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대안이 있다면 2000명 증원에서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7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는데 아예 증원을 말자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 등 당에 일임하고 4

자 협의체에 들어오는 어떤 의사 단체든 그 대표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단체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증원 유예를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강조하자 일각에선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당 지도부 의견도 정부 생각과 대체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는 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여전히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가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의체에서 다른 의견이 도출된다면 이를 따를 수 있다”며 “일단은 의료계와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기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 모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협의체 구성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생명이 걸린 일



8일 서울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일반진료는 제한 또는 지연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을 놓고 정부가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장 장·차관을 경질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장·차관의 경질이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김정재 기자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 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내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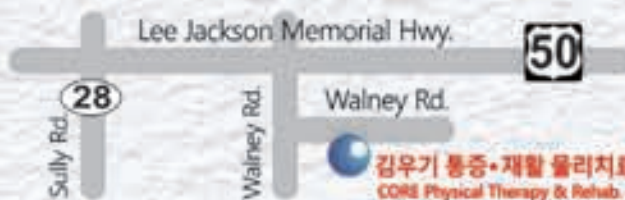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실형에 국고반납도 않고 재출마... '곽노현 방지법' 까지 거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치러지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도 사퇴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무효형(징역 1년)을 받은 곽노현(사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재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후보 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되고도, 30억원의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은 후보가

출마선언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선거 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여권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



원은 지난 4일 교육감의 무(無)당적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름만 커지고 있다”며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감 후보자가 개인 돈 수억원을 쓰고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뒷돈을 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만 1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의 경

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책(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책·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주력하는 건 정당 추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이 반복돼서다. 2022년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은 강신만 전 전

교조 부위원장과 의 단일화에 성공해 38.1%만 얻고도 당선됐다. 보수 후보들이 총 58.59%를 득표했으나 2위 조 전혁(23.49%), 3위 박선영(23.1%) 후보로 양분됐다. 조 전 교육감이 39.08%를 얻어 처음 당선된 2016년도 마찬가지로였다. 보수는 문용린(30.67%)·고승덕(24.25%) 후보로 쪼개졌다. 여론 관계자는 “시민단체로 조직돼 있고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진보는 어떻게든 뽕뽕 뭉쳐 이기는데, 보수는 애당초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문 전 대통령 “윤 대통령, 여론 안 들어”... 이재명 “검찰수사는 정치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예방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라며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이뤄진 문 전 대통령, 김정은 여사와의 40분간의 차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한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고 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타이스타켓에 취업한 일로 직접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방문 및 샤넬 재킷 의혹 등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검찰권이 야당이나 다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흥기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두 분이 ‘검찰개혁을 일부만 했더니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국가 시스템이 무

너지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여론은 안 듣고 혼자서만 결정하는 것 같다. 이해불능의 상태”라고 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의료대란 등을 야기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차담회 후 평산책방에서 이 대표에게 자신의 회고록을 건넨 뒤 “외교·안보·국방·보훈 분야만큼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하고 있어서 회고록을 먼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지자를 향해 손을 맞잡아 번쩍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대변인은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선 안 되는 점에 두 분이 강하게 공감을 하셨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평가도 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시에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혔으면 좋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득표율이 45% 정도였는데 관심을 가진다면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방문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지난달 18일 전당대회를 마친 직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미뤄졌다.

이 대표는 오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수사 등에 대해 “일련의 상황이 격정된다. 지금처럼 당이 중심을 갖고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문재인 두 사람의 만남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꾀수 회동이자 사법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며 “개인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소속 정당을 명멸게 하고, 국회 민생 논의를 멈춰 세우는 일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강보현·김정재 기자

한동훈 1792건, 원희룡 428건 ‘소액 후원’ 한 대표 당선 밀거름 됐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에게 1800건 가까운 소액 후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4명의 후보는 평균 1억98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 대표가 2억15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윤상현·나경원 의원은 각각 1억7600만원과 1억5000만원이었다.

다만 한 대표와 원 전 장관의 씬씀이 전략은 정반대였다. 한 대표는 대중을 상대로 한 공중전에, 원 전 장관은 당원을 겨냥한 조직 선거에 집중했다. 원 전 장관은 총 지출액의 56.4%(1억4200만원)를 문자 발송에 썼다. 반면에 한 대표가 문자 발송에 쓴 비용은 700만원에 불과했다. 원 전 장관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나경원(8120만원)·윤상현(4730만원) 의원의 문자 발송 비용보다 적었다.

한 대표는 대신 대중 홍보를 위해 6710만원(홍보물 3080만원, 배너·현수막 등 3630만원)을 썼다. 또 프로필 사진 촬영과 헤어·메이크업에 2200만원을 지출했다. 문자 발송 대신 이미지 제고

와 공중전으로 대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전 장관의 지출 100만원(홍보물 0원, 배너·현수막 등 100만원)과 대비된다. 후원금 모금도 차이가 컸다. 4명 모두 상한액(1억5000만원)을 채웠지만 한 대표는 소액 후원이, 세 후보들은 고액 후원이 중심이었다. 한 대표 후원회는 총 1억7200만원을 모금해 1792건의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고했다. 건당 평균 9만6000원꼴이다. 한 대표는 7월 1일 모금 시작 8분 만에 상한액을 채웠다. 1억5000만원을 모금한 원 전 장관의 영수증 발행 건수는 428건이었다. 고액 후원자(연간 300만~500만원)는 윤 의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 의원 11명, 원 전 장관 9명 순이었고, 한 대표는 1명에 그쳤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인요한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1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장동혁(8500만원), 진종오(청년최고위원, 2100만원), 김민전(2100만원) 최고위원 순으로 후원금 모금액이 많았다. 다만 영수증 발행 건수는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장 최고위원이 1280건으로 가장 많아 한 대표와 같은 소액 후원금 풀림 현상을 보여줬다. 이창훈 기자

후원금 모금액과 영수증 발행 건수				여당 7·23 전대 후보별 주요 지출 내역				
후	보	모금액	영수증 발행 건수	후보	지출총액	문자발송	홍보물제작	여론조사
나경원	1억5100만	150	150	나경원	1억5000만	8120만	2220만	0
원희룡	1억5000만	428	428	원희룡	2억5100만	1억4200만	0	990만
윤상현	1억5200만	63	63	윤상현	1억7600만	4730만	920만	0
한동훈	1억7200만	1792	1792	한동훈	2억1500만	700만	3080만	300만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북한, 밤낮없이 오물풍선 도발... 닷새 동안 1250개 띄웠다

북한이 8일 오전 쓰레기(오물) 풍선을 다시 띄우면서 닷새째 도발을 이어갔다. 지난 4일 이후 이날까지 날려 보낸 풍선은 1250여 개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어제(7일)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며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은 또다시 17번째 부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8일 120개의 오물 풍선을 띄웠으며, 이 중 40여개가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11차 부양 이후 한 달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풍선을 내려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풍선 부양에 필수적인 풍향도 무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 풀숲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왼쪽 사진).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진우포병중함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름 만에 저장도 대남 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이 들어있다”면서 “북한 수뇌부로서는

북한은 표면적으로 “남측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달 3일에도 한 선교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을지자유의방패(UFS) 기간(8월 19일~29일) 남측 단체

가 쌀 등을 담아 풍선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이 UFS에 대해 대남·대미 시위를 벌여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남측의 ‘8·15 통일 독트린’과 UFS 등에 대응하지 않았던 북한

이 보름 만에 저장도 대남 시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는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이 들어있다”면서 “북한 수뇌부로서는

통일 독트린을 직접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될 수 있어 (풍선이라는) 암묵적인 시위를 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북측 수뇌부에 보여주기식 대남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 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 건수는 서울시 13건, 경기도 38건 등 총 51건이다. 현재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이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신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정 기자**

내 휴대폰에 웬 나체 사진이... ‘온라인 바바리맨’ 피해 확산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성의 나체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수십 번 받았다. 처음엔 익명 계정으로 “당신의 사칭 계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짜 당신이 맞나”고 접근한 뒤, 대화를 수락하면 곧장 선정적인 사진을 날리는 식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계정 3개에 대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SNS

에 운동·일기 게시글을 꾸준히 올렸던 30대 남성 박모씨 역시 최근 메시지로 선정적인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위하는 사진 등을 보낸다”며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불쾌한 사진을 보내 무시당하는 기분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엔 휴대폰의 블루투스·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한 사이버플래싱도 번지고 있다.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아이폰의 ‘에어드롭(Airdrop)’이나 갤럭시의 ‘퀵 셰어(Quick Share)’를 활용해 주변 휴대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실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파일을 받았다는 생각에 더 큰 두려움을 호소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성기 사진을 받았는데 누군가 나를 타깃 삼았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친다”, “버스에서 음란 사진이 계속 전송돼 결국 중간에 내렸다” 같은 경험담이 올라왔다.

사이버플래싱은 불법 활동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될 수 있지만 피해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작성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휴대폰 등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를 ‘사

이버 괴롭힘’으로 규정했는데, 해당 피해 사례는 2018년 108건에서 지난해 500건으로 5년 사이 4.6배가 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232명(4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92명)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특성상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김은정 변호사는 “음란물을 전송한 뒤 계정을 삭제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기관에 고소하더라도 결국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를 잡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적용하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버가 외국에 있는 SNS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강제 수사도 어렵다. 이 때문에 호주에선 지난 2021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SNS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괴롭힘 콘텐츠나 동의하지 않은 사적 이미지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혜 변호사는 “사이버플래싱은 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이 정보 조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거 자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제공자가 국내 사이버괴롭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식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윤상현 “정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윤상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 차원에서 마약 및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성범죄는 육신은 물론 정신까지, 사람의 온전한 삶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과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선 마약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마약 수사청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가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조 수사도 감·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마약의 제조·유통·밀수 및 관련 자금 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체제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이미지 합성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 출범과 함께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8일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된 여군이 2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거나 자체 인

지해 발견한 사례들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인트라넷(내부망) 업무용 전산 체계인 ‘온나라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에서 사진을 불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부망 개인정보 가운데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 정보에 대해 조회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사권자 등 일부 담당자들만 사진 조회가 가능하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텔레그램방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석·이유정 기자**



미리하는 추석 성묘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8일 부산 영락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성묘하고 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부터 늦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봉근 기자**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고민,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69만 우드브리지 나들 분당 방4+차3

\$56만 알함드 콘도 방2+28퍼 고층은 메트로의 인접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역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합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셉티비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우연하다’와 ‘우연찮다’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뤄져 공교롭다는 의미로 ‘우연하다’를 쓴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우연찮다’를 쓰기도 한다. ‘우연찮다’는 ‘우연하다’와 ‘않다’가 만나 줄어든 단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우연하다’의 반대말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도 있을 법하다.

‘시원하다/ 시원찮다’ ‘만만하다/ 만만찮다’ 등이 각각 반대의 뜻인 것을 생각하면, ‘우연찮다’ 역시 ‘우연이 아니다’란 의미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우연하다’와 ‘우연찮다’는 둘 다 ‘뜻하지 않게’라는 뜻으로 별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

‘우연찮다’는 ‘우연하다’와 ‘않다’가 결합해 처음엔 ‘우연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됐겠지만, 많은 사람이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닌 중간 정도에 이 말을 쓰다 보니 국립국어원은 변화된 의미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우연찮다’와 ‘우연하다’가 비슷한 의미의 표준어로 등재돼 있다.

비슷한 사례로 ‘주책이다’와 ‘주책없다’를 들 수 있다. 일정한 뜻대가 없이 되는데로 하는 짓을 나타낼 때 ‘주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책없다’라고 쓰기도 한다. 이들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해 둘 다 같은 뜻의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모두 써도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2024년 여름을 보내며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장을 방불케 했다. 폴란드는 1920년 8월 12일에서 25일 사이 유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 볼셰비키 군을 물리친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여 8월 15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는데, 이날 열병식에서는 한국산 FA-50 경공격기들이 하늘을 누비는 가운데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의 기술과 부품으로 만들어진 크랩 자주곡사포 등이 줄지어 행진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위기를 느껴 급속히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10만 명의 병력을 20만으로 늘렸고 한국산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등으로 3개의 기동사단을 증설했다. 국방비도 종전의 GDP의 2%에서 올해 3%로 올렸고 곧이어 4% 수준까지 늘린다고 한다.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과 지원 장비를 합쳐 약 299억 1,990만 달러가량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이런 수위에 힘입어 한국은 방산수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8월 동안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되었고, 18일에는 작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3국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8월 19일부터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 되었는데, 올해에는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북한의 핵 공격 상황도 상정하여 실시했다. 북한은 이런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한국과 미국이 북침 연습을 한다고 선전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세계와의 교역과 협력을 통해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와보니 한국이 북침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를 알겠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는 큰 흉수가 있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난 홍수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 피해가 컸다. 북한 당국은 1만 5,400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최대 1,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월 15일에는 수해 지역 어린이, 연로자, 병약자 등 1만 3천 명을 평양으로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위로 행사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고 통치자의 애민사상을 선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홍수로 압록강 일대 철책선과 수만발의 지뢰가 유실되자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수해 피해 자녀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8월 동안에도 세계와 한반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한국 국민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독자마당

한-미 운전면허 인증

2024년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주는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앨라배마,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23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한인인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혜택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교섭 사항이 아니고 각 주 정부가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교섭사항이다. 나는 과거 한국-온타리오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북미주 지역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교통 장관, 담당 직원들과 1년 동안 친분을 쌓은 끝에 얻는 성과였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오히려 온타리오 지역 캐나다인들이 더 좋아했다. 한국에 나갈 때 한국 면허시험을 안 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신나했다. 또 온타리오주에 주소만 있으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토론토로 여행을 왔던 미국 거주 한인들도 온타리오주 친지의 주소소를 이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

으로 바꿔준다. 미국에서는 캐나다 면허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면허증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가주에 정착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운전면허증 교환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캘리포니아주 내 한국 공관들이 합심해 주 교통 당국과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관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인들을 위한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대원 LA거주, 전 외교부대사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수입 \$11,000</p>	<p>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수익 52만불, 8백만불</p>	<p>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p>	<p>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이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p>	<p>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수익의 \$218,000</p>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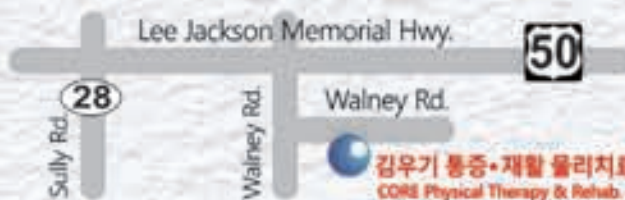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클라라 안
메디케어/보험 플래너

Q 메디케어 보험 회사 선택은 고객이 해야 한다

▶문= 가입 당시 제 에이전트는 별다른 자세한 설명도 없이 새로 나온 모보험 회사에 가입하라고 강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파트 B 보험료도 보조해 주는 플랜이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코페이를 냈고 또 입원 수술 후 퇴원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처우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험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답=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메디케어 보험 회사는 1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보험 회사 상품들을 시니어 분들이 일일이 알아보기 힘든 현실이므로 전문 에이전트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로부터 여러 보험 회사들을 충분히 비교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여 개인에게 맞는 보험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다가 큰일이 생기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현재 들고 계신 보험은 파트 B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대신 다른 혜택들이 줄어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 건강하신 70

중반 이전 그리고 처방약 복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은 보험 회사를 네트 워크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볼 때 거기에 따른 혜택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시 더 유리한 보험이 있는가 하면 추가 혜택들이 더 많은 플랜들이 있습니다. 가입자 처한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에이전트들과 브로커들이 특정 메디케어 보험 회사들의 보너스 플랜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받

기 위해 고객들에게 특정 플랜만을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 비재 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계속되면서 CMS 정부 기관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CMS가 발표한 2025년에 중요한 변화가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의 이런 불공평한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시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불평등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 본인이 메디케어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70중반이면 보험 회사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보다는 보험에 본질적인 의료 혜택에 비중을 두는 게 좋겠지요.



크리스 정
재산/상속/트러스트 변호사

Q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문=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답= LLC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부채와 법적 판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테넌트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집주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여파가 개인 자산에까지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법적 책임은 LLC의 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유한 다른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전 취소 가능 신탁(Living Revocable Trust)은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양도인은 생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인(Probate)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결합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제공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LLC를 통해 소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동시에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전략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스티브 양
웰스파코 한인용자담당

Q 손님의 모기지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문= 모기지를 신청한 손님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자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금리가 높은 시기에 그나마 이자율을 잘 받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손님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포인트(Discount point)라고 불리는 오리지네이션 피의 지불 여부, 손님의 신용점수, 다운페이먼트 정도 (혹은 LTV = Loan to Value), 용자의 금액과 형태 즉 일반(Conforming) 용자

인지, 점보 용자인지, 구매 용자인지, 재용자인지, 현금 인출 재용자인지, 주택의 형태 즉 SFR, Condo (Town House), 2-4 units, 주택에 대한 거주 용도 즉 주거용, 세컨드 홈(별장용), 투자용인지 등을 손님의 이자율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지불할 경우에는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는 이자율을 1포인트 (용자 금액의 1%)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1포인트를 지불할 경우 지불하지 않을 때 보다 30년 고정으로 보통 0.

25%-0.375% 정도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인트를 지불하고 더 낮은 이자율을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불한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집을 빨리 팔 예정인 사람들은 당연히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몇 년 내에 재용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역시 포인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상 주택이 2-4유닛이거나, 거주 용도가 세컨드 홈

(별장용) 혹은 렌트 용인 경우에는 렌더가 포인트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자 담당자와 잘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손님의 이자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혹은 에퀴티) 정도입니다. 신용점수가 7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운을 25%만 하여도 최상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사람이 다운을 25%만 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빌딩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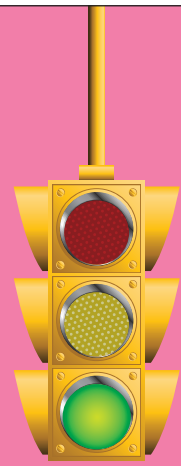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September 9, 2024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방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버블 터지기 직전 성장주 강세...과거 사례 잊지 말아야

경계해야 할 미 주식 시장 쓸림 현상

한국 증시가 장기 횡보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증시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한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 초저금리 투자 환경이 만들어졌던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총 604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81조원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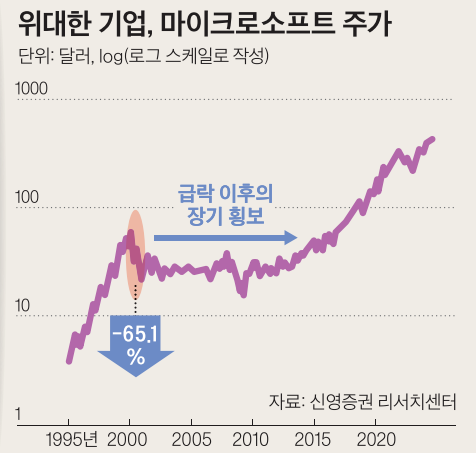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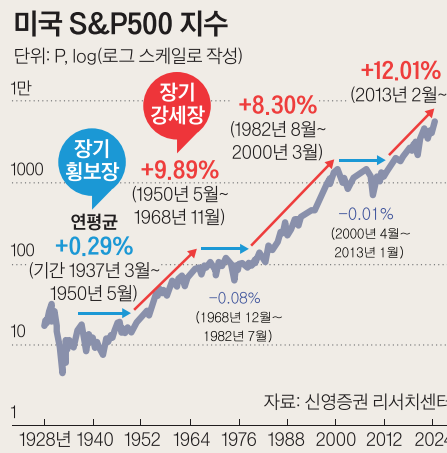
지능이 뛰어난 사람부터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나라 투자자나 '자국 자산에 대한 편향적 투자(Home bias)'가 나타나게 마련이지만, 여기 머물지 않고 해외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글로벌 경제의 중추 국가 반열에 올랐지만 한국 너머의 세상은 넓고, 투자할 곳도 많다. 2023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치고, 2024년 7월 말 기준 세계 주요 증시 시가총액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에 불과하다.

가계 자산 중 해외 비중 여전히 낮아
최근 해외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절대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가계가 보유 중인 해외금융자산은 원화로 환산하면 99조원이다. 이 중 해외 주식이 88조원,

해외 채권이 11조원으로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 금융자산은 2020년 이후 연평균 44.6%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아직 전체 가계금융자산(520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월 말 기준 40.6%에 달하고 있다. 가계가 전문적 투자기관인 국민연금 수준으로 해외 자산 보유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 행위가 그렇듯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당대의 가장 인기 있는 자산에 대한 극심한 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즘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는 적지만 2014~15년에도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후강통(滬港通·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 개인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 붐이 나타난 바 있었다. 2014~15년 전체 해외주식 순매수 4억7000만 달러의 93%인 4억4000만 달러가 홍콩 주식에 대한 순매수였다.

미 증시 불패만 맹신 버려야
요즘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는 단연 미국 주식이다. 2020년 이



한국 투자자 보유 해외주식 상위 10대 종목 단위: 달러(8월26일 기준)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1 엔비디아	126억8000만	-
2 테슬라	125억4000만	-
3 애플	50억9000만	-
4 마이크로소프트	34억6000만	-
5 프로세서즈 울트라프로 QQQ ETF	31억2000만	나스닥100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6 디렉선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	25억1000만	뉴욕증권거래소 반도체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7 알파벳	22억4000만	구글의 모회사
8 인베스코 QQQ ETF	20억8000만	나스닥100지수 추종 ETF
9 아마존	14억8000만	-
10 디렉선 데일리 20 + 트레저리 레버리지 ETF	14억4000만	미국 장기국채 가격 변동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후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 604억 달러 중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571억 달러(약 76조원)로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돈은 수익률을 따라 흐른다. 한국 증시의 장기 성과 부진에 지친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로 투자의 물꼬를

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십수 년 미국 증시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4면 '주식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RW & S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INSTEIN & SOHN
v 교통사고 직후 현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엔화 강세, 2차 청산 부를 수도

세계금융시장에 '엔화 바겐세일'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지난 5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블랙 먼데이'는 주식과 채권·외환 등 전 세계 주요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던 엔화 자금의 귀환과 자산 리밸런싱이 시장에 균열을 가하며 빚어졌다.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나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한다. 1999년 일본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에 진입하면서 엔화를 싼값에 빌려 달러화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캐리 트레이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과 다른 국가의 금리차와 엔화 가치의 흐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와 청산의 사이클을 오가며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됐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난 5일 블랙 먼데이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건 2021년 이후 늘어난 엔화 유동성에 기인한다.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QE) 확대 속 저금리의 엔화 자금이 시장에 넘쳐났다. 반면 이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확대됐다.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커진 배경이다. 수퍼 엔저 현상은 엔 캐리 트레이드 급증에 기름을 부었다. 2021년 이후 일본의 해외 순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투자한 자산은 미국 달러와 멕시코 페소, 뉴질랜드 달러 등으로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의 연간 수익률은 5~6% 수준이다. 빅테크 주식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타깃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지펀드 등은 싼 엔화 자금을 조달해 그동안 수익률 고공행진을 했던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iM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서 달러-엔 환율과 나스닥 지수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됐다"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과거처럼 싼 중국 시장으로 유입되기 보다 달러 혹은 기술 혁신 사이클 관련 자산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엔 캐리 청산에 '엔화 숏스퀴즈' 급등

저금리·엔저로 엔화 유동성 증가
달러·빅테크 주식 투자로 몰려

BOJ 기준금리 인상과 엔화 강세
자산 리밸런싱 부추겨 시장 요동

엔 캐리 자금 규모 가능 어려워
JP모건 "75%가량 청산" 추정

싼값의 엔화 자금이 취해 있던 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Fed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BOJ가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다. 지난 3월 BOJ가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던 시장에 방아쇠를 당긴 건 지난달 31일 BOJ의 '깜짝 금리 인상'이다.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하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12일 일본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며 엔저 정상화의 지를 드러내며 시장의 긴장도는 이미 높아진 상태였다.

일본의 금리가 상승하고 다른 국가의 금리가 하락할수록, 엔화 가치가 오를수록 엔 캐리 트레이드 여건은 나빠진다.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데다, 더 비싼 값에 엔화를 사들여야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이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팔아야 하는 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화 강세와 깜짝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어지며 당장 엔화 약세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나가떨어졌다. '엔화 숏스퀴즈'가 급증했다. 숏스퀴즈는 자산 가격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가 가격이 될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자산을 사는 것이다.

금융결제업체 콜페이의 수석 시장전략가인 칼 샤모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9일은 17년 만에 가장 큰 엔화 숏스퀴즈가 발생했다"며 "레버리지 펀드를 비롯한 투자자가 2007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엔화 약세 베팅을 청산했다"고 말했다. 엔화 가치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투기 세력이 BOJ가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충격은 투기 세력만 받은 게 아니다. 일본 증시도 강타했다. 엔화가치 변동 헤지를 위해 일본 주식에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지난 5~9일에만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2018년 이후 주간 최대 자금 유출이다. 미국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블랙먼데이에 발생한 빅테크 주가 급락에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다.

'BOJ 금리 인상=엔 캐리 청산' 신호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BOJ의 금리 인하와 엔저 정책이 엔 캐리 트레이드를 늘리고, 이후 풀었던 수도꼭지를 잠그면 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벌어진 각종 이벤트와 함께 BOJ의 금리 인상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KB증권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월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2001년 하반기~2002년 초반이다. 1999년 제로금리를 단행한 BOJ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자 2000년 8월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미국의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등으로 커진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

세 번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린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 세계 경기가 개선되자 BOJ는 기준금리를 2006년 7월 0.25%로, 2007년 2월 0.5%로 인상했다. BOJ의 금리 인상 기조 속 서브프라임 사태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3개월 진행되며 미국 주식시장 급락을 야기했다.

네 번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2016년 이후다. 2015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에 나선 Fed가 1년여의 동결 기조를 깨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며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5~16년 중국 주식 급락과 2016년 브렉시트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팬데믹 확산 시기인 2020년 6월에 다섯 번째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광의의 엔 캐리 자금 수조 달러 주장도

이제 관심은 이달 초 벌어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종료 시점이다. JP모건 퀀트팀은 지난 5~9일 사이에 엔 캐리 트레이드의 75%가량이 청산됐다고 추정했다. JP모건체이스 외환전략팀은 50~60%, 스코샤뱅크는 50% 정도 청산됐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런 추정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엔화 대출 잔액이나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선물거래 포지션 등으로 추정은 하지만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로이터통신은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아무도 모르고, 실제 포지션은 증폭돼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광의의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에는 엔 캐리 트레이딩이 협의의 투자 전략이었다면, 관련 수익이 누적된 가운데 레버리지가 더해진 광의의 개념이 되어 영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금리 상승(대의 금리 차 축소) 및 엔화 강세→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관련 레버리지 투자 디레버리징→금융시장 충격→엔화 강세→금융시장 충격'의 순환 구조 속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각종 시나리오도 등장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엔 캐리 트레이드 추정 지표를 활용해 추산한 예상 청산 규모가 그중 하나다. 과거의 최대 감소 사례를 적용해 예상한 것이다. 첫 번째 지표는 글로벌 은행들의 국경 간 엔화 대출 잔액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41조1000억엔(2713억 달러)으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의 상한선에 해당한다. 2021년 6월 말(25조3000억엔) 이후 2년 9개월 만에 62%(15조8000억엔) 늘었다. 과거 최대치(7분기 동안 26%)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앞으로 21개월간 월평균 35억 달러가 상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눈 돌리는 투자자 두 번째는 지난 3월 말 기준 34조3000억엔(2269억 달러)인 일본 거주자의 대외 단기 엔화 대출이다. 과거 최대치(2년 동안 59%)를 적용해 추산하면 24개월간 월평균 58억 달러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자금 전체를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세 번째로 일본 가계 부문의 해외 금융자산 보유 잔액(3월 말 기준 90조8000억엔)에 과거 최대치(5분기 동안 27%)로 추산할 경우 최대 15개월간 112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단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파생상품 포지션은 상당 비중 청산됐고 증권 투자를 통한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주도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청산이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앙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영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하면 엔화 강세 기대가 2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가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 주자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이 싼값에 조달할 수 있는 위안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CNBC는 "위안화가 엔화 다음으로 잠재적인 캐리 트레이드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장이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하현욱 논설위원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보험과 연금 적절히 결합해 활용하라

은퇴 준비 투자 유형

흔히들 은퇴준비라면 투자를 생각한다.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를 통한 투자일 수도 있고, 일반 브로커리지 투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보험과 연금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어니스트앤드영(EY)이 여러 유형의 투자 시나리오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다섯 가지 전략

비교를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고려했다. 첫번째는 당연히 투자만 할 경우다. 투자만 한다는 것은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만 쓴다는 의미다.

우선 은퇴계좌를 적립 한도까지 넣고, 남은 자금은 일반 브로커리지를 통해 추가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투자는 모닝스타의 중도 성장 분산 포트폴리오를 사용했고, 은퇴에 가까울수록 점차 보수적으로 자산배치가 이뤄지는 방식의 포트폴리오다.

두번째는 기간성 보험을 사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전략이다. 은퇴저축을 위해 종신형 저축성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극구 반대하는 이들이 권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생명보험은 저렴한 기간성으로 들고 나머지는 투자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저축성 생명보험과 투자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저축성 생명보험은 '홀라이프' 상품이다.

네번째는 평생 보장 소득을 주는 연금과 투자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다. 저축성 생명보험과 연금은 투자만 할 경우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의 비중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연금이나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 저축하는 만큼 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정했다.



투자만 하기보다 보험, 연금, 투자를 상황에 맞게 결합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게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45세 부부는 저축성 생명보험에 더 많은 저축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은퇴 소득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금과 투자만 결합하는 것보다 저축성 생명보험 30%, 연금 30%, 그리고 투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유는 45세의 경우 25세나 35세에 비해 주식형 자산에 배치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주식형 자산 배치 비율을 낮추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금융자산은 주식형 자산이 아닌 채권형 자산을 대체하면서 채권형 자산에 비해서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결론

조사에서 활용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홀라이프 상품이였다. 연금도 평생 보장 특약조항이 있는 일반적인 고정 연금이었다.

요즘 나오는 지수형 연금과 지수형 생명보험을 시나리오에 대입했다면 결과는 보험과 연금, 투자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보고서 내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을 것이다.

이를 떠나 EY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몇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이 제삼자 시각에서 보험과 연금, 투자가 은퇴준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자만 하는 방법도 아니고 기간성과 투자를 병행하는 방법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저축성 생명보험과 연금, 투자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은퇴준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투자만 하거나 기간성·투자 병행은 권장 안 해 저축성 생명보험·연금·투자 목적·상황 고려해야 은퇴소득·상속자산 마련 측면에서 모두 더 유리

다섯번째는세번째와네번째를 결합한 전략이다. 저축성 생명보험과 연금, 투자 이 세 유형의 금융상품을 적절히 결합한 것이다. EY는 이 다섯 유형의 전략들이 다른 연령대에 따라 어떤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봤다.

결과는 은퇴 후 세금을 낸 수령할 수 있는 소득 규모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의 규모, 두 측면에서 모두 비교됐다.

▶연령별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사용된 저축성 생명보험은 홀라이프 상품이고 연금은 평생 보장 소득을 주는 상품이다. 그리고 연금가입 시기는 은퇴를 약 10년 앞둔 55세를 전제로 했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배치하는 저축 금액은 소득의 최대 60%까지로 제한

해 시나리오를 돌렸다. 연금에 배치하는 금액은 55세 예상 자산 규모의 30%를 최대로 제한했다.

25세 젊은 부부의 시나리오부터 보면 결과는 저축성 생명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경우, 연금과 투자를 결합한 경우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과 투자를 결합한 경우가 기간성과 투자를 결합한 경우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은퇴소득 규모에서도 우세했지만, 상속자산 측면에서는 월등히 나왔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10%, 30%, 50%를 저축성 생명보험에 배치할 경우 같은 금액을 기간성 보험에 배치하고 나머지를 투자했을 때보다 모두 은퇴소득이 더 높아졌고, 상속자산 규모는 최고 20%까지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소득만 놓고 보면 연금과 투자

를 결합한 경우가 투자만 할 경우에 비해 현저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연금의 기능이 더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성 생명보험과 연금, 투자를 모두 적절히 함께 사용할 경우 투자만 하는 것보다 은퇴소득과 상속자산 마련 두 측면에서 모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저축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퇴소득과 상속자산 중 어느 쪽 비중이 크가에 따라 저축성 생명보험과 연금에 배치하는 예산을 달리 가져갈 수 있다. 양자의 균형을 원한다면 저축예산의 30%를 저축성 생명보험에, 55세 자산 규모의 30%를 연금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배합일 것이라는 게 EY측의 의견이다.

이런 결과는 35세 부부, 45세 부부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PART 13. 광고비 칼칼 낭비하게 만드는 한 가지 고치기

▶이제 고객 반응은 2배~5배까지 늘어난다?

대부분의 스톡비즈니스 오너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광고와 홍보비의 대부분을 몰 쏟듯 칼칼 낭비한다. 물론 사실이고, 이것 하나만 고쳐도 실제 고객 전환과 세일즈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런 게 어딤?” 하겠지만 이미 증명된 일이다. 단 한 가지만 바뀌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자.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데?”이다. 그 대답은 바로 ‘랜딩페이지/세일즈페이지’이다.

▶정말 바뀌고 있는가?

랜딩페이지 또는 세일즈페이지라고 불리는 웹사이트의 형식은 갈수록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세일즈 향상을 원하는 특목한 사업체는 거의 이란 스타일의 웹사이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전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의 사업체는 어떤가? 랜딩페이지와 특별한 오퍼의 조합을 통해 세일

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임팩트 없는 웹사이트 때문에 문의 고객과 구매 고객 확보를 대부분 처참하게 잃어버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웹사이트면 됐다?

많은 스톡비즈니스 사업주의 판단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웹사이트를 체크리스트의 하나로 보고, 일단 정보 전달형으로라도 갖고 있다면 해결이라고 만족해 한다. 무엇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정보 전달 역할 하나만 만족하는지 솔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제 구실 못하는 바보 웹사이트?

사업용 웹사이트는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 문의와 판매, 고객 전환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라. 간단히 웹 방문과 고객 반응 통계자료만 봐도 안다. 마케팅 노력을 해오지 않았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던 로컬 스톡비즈니스라면 웹사이트를 통한 매출 상승과 고객 전환은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랜딩페이지와 일반 웹사이트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고객 반응의 차이를 낸다. 일반 웹사이트의 치명적 문제점이 당신의 지불하는 광고 비용을 거의 잡아먹고 있다.

▶웹사이트의 한계와 문제점
많은 카테고리과 항목들로 방문자

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는 뚜렷한 행동 요청이 약하다.

방문객이 스스로 여기저기 뒤져본다. 핵심 메시지를 통한 고객 행동이나 반응을 이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단번에 해결하는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언제나 단 하나의 메시지로 승부한다. 특별한 오퍼가 있기에 고객의 시선과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효과적이다. 지금 반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긴급함까지 줄 수 있다. 간단한 메시지의 조합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행동 요청으로 고객을 끌어온다. 매력적인 오퍼나 보너스, 디스카운트까지 포함하고, 오퍼 마감일까지 넣어주면 고객 반응은 더욱 높아진다.

▶그럼 언제 랜딩페이지로 전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판매에 관심이 비교적 적거나 정보 전달로 충분한 경우는 랜딩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광고에만 랜딩페이지를 사용한다. 광고나 홍보를 위해 고객 반응, 고객 전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럴 땐 자체 웹사이트 외에 세일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한다.

항상 랜딩페이지를 사용한다. 광고와 홍보뿐 아니라, 아예 웹사이트를 랜딩페이지로 대체하는 스톡비즈니스는 더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매출, 고객 반응, 고객 전환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웹사이트를 아예 랜딩페이지의 강력한 세일즈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형 웹사이트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계속되는 랜딩페이지연재를 통해 로컬 비즈니스 매출을 적어도 2배에서 5배까지 올려보도록 하자.

▶랜딩페이지 + 컬러 오퍼문의,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면 주식 시장'에서 이어집니다

확고한 재산권 보호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주도권, 기업의 혁신, 주주친화적인 투자 문화 등 미국 증시가 가진 장점은 많다. 미국 증시로 투자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미국 증시가 늘 배라는 맹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자산 가격 이건 오르내리는 사이클을 가지게 마련이고, 많이 오른 자산은 가격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는 자산의 절대적 퀄리티에 대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훌륭한 자산일수록 투자자의 몰입이 생기면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고평가 혹은 버블이 생기는 것이다. 고평가된 자산 가격은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은 각각 23.7배, 33.0배에 달하고 있다(8월27일 종가 기준).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IT 버블 국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의 성과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맞물렸던 1940년대

내내 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렀고(1937년 3월~1950년 5월, S&P500 지수 연평균 등락률 +0.29%), 인플레이션이 엄습했던 1970년대(1968년 12월~1982년 7월, -0.08%)와 IT 버블이 붕괴했던 2000년대 초반의 10여 년(2000년 4월~2013년 1월, -0.01%)도 장기 성과가 부진했다. 최근 십수 년의 한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장세와 비슷한 사례를 미국 증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증시의 장기 회복장은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극단으로 치달은 직후에 나타났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엿볼 수 있는 ‘열광의 1920년대’가 지난 뒤 장기 회복장이 나타났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렸던 1950~60년대 장기 호황이 끝난 뒤 1970년대의 부진한 장세가 이어졌다. 또한 ‘인터넷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낙관론이 득세했던 1990년대가 끝난 직후 미국 증시는 장기 회복 장세에 접어들었다. 미국증시의 장기 사이클은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해준다.

한편 낙관론이 팽배했던 장기 강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강세가 나타났다는 공

통점이 있다. 대공황으로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이었다던 1920년대 미국 증시를 품미했던 종목들은 당시의 첨단기술주였던 자동차와 라디오 주식들이었다. 이들은 매우 비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고평가)으로 거래됐다.

강세장 막바지엔 성장주 잘 나

1970년대 주식 시장의 장기 회복세에 접어들기 직전에는 ‘니프티 피프티(Nifty Fifty·매력적인 50개 종목)’로 불렸던 우량주가 득세했다. 맥도널드와 IBM, 제록스 등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우량주가 ‘니프티 피프티’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 종목은 ‘원 디시전 스톡(one decision stock)’으로 불리기도 했다. 워낙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일단 사기만 하면 평생 팔 필요가 없다는 칭송이 담긴 표현이었다. 투자자의 열광이 지나치다 보니 ‘니프티 피프티’ 종목은 PER 60~80배의 고평가된 가격으로 거래됐다.

2000년대 초반 장기 회복 장세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었던 닷컴 주식의 약진이 있었다. 요즘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 시대의 혁신 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매그니피센트 7(M7,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에

플·알파벳·아마존·메타·테슬라 등)을 지칭’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도 이들 성장주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 개인투자자의 총 해외 주식 보유 금액은 9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엔비디아(126억 달러)와 테슬라(125억 달러)가 근소한 차이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애플(50억 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34억 달러)가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알파벳(22억 달러)이 7위, 아마존(14억 달러)이 9위다. ‘M7’ 종목 중 보유금액 순위 20위(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메타플랫폼을 제외한 6개 종목이 보유 상위 10대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위 10대 종목 중 나머지 4개는 상장지수펀드(ETF)인데, 이들 중 3개가 나스닥 시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M7’ 종목군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3개의 나스닥 추종 펀드 중 2개가 나스닥 100지수 등락 폭의 3배를 반영하는 레버리지 펀드라는 사실이다. 상위 10대 종목 중 마지막 10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미국 장기채 ETF 역시 채권 가격 변동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만

기가 긴 장기 채권은 상품명에 ‘채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가격 변동이 매우 커 사실상 ‘주식’에 가까운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

미국 빅테크주 집중 투자 우려스러워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 빅테크주, 지수 변동 폭의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집중돼 있다.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 감내해야 할 종목에 대한 솔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주가가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국면에서 나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여년이 지난 요즘에도 나스닥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위대한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기업도 닷컴 버블 붕괴 국면에서 주가가 65%나 급락한 이후 10년이 넘는 회복기를 거쳤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은 투자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부터 지금까지)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그 이름을 아는 만큼 보이는 생명의 세계



자연에 이름 붙이기
캐럴 계속 윤 지음
정지인 옮김
월북



일본 도쿄 긴자 아트 아쿠아리움 미술관의 금붕어와 관람객. 책에 따르면, 분기학자들은 '어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EPA=연합뉴스]

계(界·Kingdom)-문(門·Phylum)-강(綱·Class)-목(目·Order)-과(科·Family)-속(屬·Genus)-종(種·Species). 18세기 스웨덴의 생물학자 칼 린나이우스(린네)가 제시한 생물 분류체계다.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여전히 사용하는 린네식 생명 계층구조를 학창 시절 달달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거다. 인류는 동물계-척삭동물문-포유강-영장목-사람과-사람속-사피엔스종이다. 생명의 세계 전체를 체계화해 '과학적 분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은 린나이우스는 인류 종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 명명했다. 호모(Homo)는 속명, 사피엔스(sapiens)는 종 이름이다. 학명 또는 라틴어 명(名)으로 불리는 이 명명법이 확립된 덕분에 전 세계인들은 각종 식물이나 동물의 이름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일이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른바 '분류학'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 『자연에 이름 붙이기』(원제 Naming Nature)는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과 분류학의 역사에 관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흥미진진하게 담은 책이다.

일본계 어머니를 둔 한국계 미국인인 지은이 캐럴 계속 윤은 오랫동안 뉴욕 타임스에 글을 연재한 과학칼럼니스트

이자 진화생물학자다. 2009년 영어본으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톨루 밀러의 과학 에세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큰 영감을 미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밀러는 "이보다 나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없다"고 고백한다.

지은이는 어려운 과학이야기, 분류학 이야기를 과학적 언어가 아닌 문학적 언어로 생동감 있게 풀어내간다.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표현들이 현란하고 귀에 속속 들어온다. 소설이나 시, 아니면 동화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자연에 이름 붙이기』는 린나이우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년 넘는 분류학사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스토리들을 곁들였다. 직관적으로 종을 알아내는 천재여서 '작은 신탁 신관'이라고 불리었던 린나이우스 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생물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영국 군함 비글함의 박물학자로 갈라파고스와 전세계를 5년간 여행하고 돌아와 따개비 연

구를 통해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라는 개념을 설화한 다윈 이후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류학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분류학은 이후 진화의 개념을 강조하는 진화분류학,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라는 새 기법에 기반한 수리분류학, 화학의 힘을 이용해 진화의 깊은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분자분류학으로 변신했다. 이 과정에서 각 학파는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지금도 그렇다.

마침내 '물고기는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기학(分岐學·Cladistics)이 등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어류는 '진짜 분류군'이 아니다. '어류'라는 하나의 분류군을 만들고 싶다면 물고기는 물론이고 물속 동물에서 진화한 육상 동물 소나 포유동물, 심지어 인간까지 모두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공룡에서 진화한 새들도 공룡이라고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록 지금은 분류학이 전문 과학자들의 영역으로 그들만의 단독 소유물이

돼 버렸지만, 지은이 캐럴 계속 윤은 생명의 세계 및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한 지각이론 의미를 담은 움벨트(Umwelt)라는 독일어의 개념을 매우 중시한다. 어린이들이 공룡의 이름과 종류를 외우는 공룡 시기, 일본의 닌텐도가 만들어 낸 유사생물인 포켓몬의 이름을 외우는 포켓몬 시기 등에서 보듯이 인류는 움벨트 비전과 분류 능력을 본능적으로 타고난 종이다.

실제로 인간의 뇌 특정 부위에는 생물에 대한 관심사와 이를 분류하는 능력이 장착돼 있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특히 원시 인류에게 분류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 식물 또는 이 동물이 무엇인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내는 능력이 생존에 중요했기 때문이다. 생물 명명력 결핍증이 있는 후손들은 움벨트 비전이 강한 성향이 있는 후손들보다 번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작았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말마따나 분류학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분류학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 인간과 생명 세계, 진화와 과학 사이의 아주 오래된 관계를 때로는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든 문제작이다. 분류학상 물고기류의 존재 문제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보다 움벨트 비전을 갖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움벨트의 소중함을 스스로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뿌듯해한다. 이 책은 우리들의 사라져 가는 움벨트를 회복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주변의 식물과 동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 각자의 이름을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세계가 더 확장될 것이다.

한경환 기자

일상의 배경서 찾은 아련한 추억과 역사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 1:2
김시덕 지음
북트리거

‘덜컥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리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는지.’ 동물원의 노래 ‘해화몽’의 한 소절이다. 도시 답사기를 저처하는 저자 김시덕의 이 책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 답사기』는 ‘우리가 잊고사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다.

고고학(考古學)과 대비되는 고현학(考現學)은 그의 답사를 안내하는 이론적 나침반. 돌맹이 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는 고고학자처럼 그는 간판, 화단, 창살, 대문, 아파트 급수탑, 계단, 중국집 메뉴판, 골목 언저리의 화단 등 일상의 배경이 되는 부스스리 같은 정보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려 한다. 지역별로 개성을 드러냈던 간판 글자체에는 ‘범영동초체’, ‘을지로체’, ‘신당5동체’ 등의 이름도 붙였다.

특히 거리 풍경과 건물 구석구석을 담은 수백장의 사진은 때론 저자의 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양한 디자인의 창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어린 시절 친구와 뛰어놀던 그 골목, 그 집 앞이 아련해진다. 책은 농촌이 산촌과 어촌을 잠식하고, 다시 산업지대가 농촌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이를 공업도시 울산, 도농복합도시 초지원 등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1960년대 이후 서울 화곡동·불광동·배재동 등에 지역 단독주택이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도 책을 통해 알게 된다.

2권은 대전역 인근, 생산도시로 변모하는 광주, 경북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서울 방배중앙로, 강원 영월 광산촌, 미군 위안부 기지촌 등을 둘러보는 답사기로 이어진다. 책의 각 장에 QR코드가 있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면 책이 서술하는 곳의 지도가 나온다. 다음 연휴 틈 날 가던 관광지 대신 이런 곳을, 예컨대 경북 영주라면 부석사뿐만 아니라 영주역 주변의 관사촌, 영주동의 근대 한옥, 풍곡정 미소 같은 곳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저자는 『서울 선언』 『갈등 도시』 『대서울의 길』 등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해왔다.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강연으로도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도시 곳곳을 촬영하고 기록한다는 그는 독자들도 주변의 일상을 스스로 기록하는 탐험가가 될 것을 권한다. 이해준 기자

책꽂이



인간의 본질(로저 스크루턴 지음, 노정태 옮김, 21세기북스)=저명한 영국 철학자로 2020년 별세한 저자의 미국 대학 특강에 바탕한 저서. 도킨스의 밈 이론 등 현대 과학과 철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인간을 생물학적 동물만 아니라 육화된 인격체로 보는 저자의 논지와 그 핵심을 담았다. 부제 '현대 과학이 외면한 인간 본성과 도덕의 기원'.



제재의 국제정치학(임감수 지음, 한울아카데미)=방대하고 복잡한 미국의 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독자제재 체제를 집대성했다. 주(駐) 루마니아 대사로 현직 외교관인 저자는 제재 정책, 대상, 효과, 구체적 사례 등을 풍부하게 소개하며 다수 국가가 참여할 때 독자제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제 주목한다.



골든 플랫폼(이지현 지음, 글동)=착하게 혹은 순진하게 혹은 바보처럼 살다가 서른넷 나이에 허무하게 죽은 주인공 미루가 '골든 플랫폼'을 통해 전생을 여행하고, 다시 환생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줄거리의 소설. 헌법학자인 저자는 전공인 법 외에 역사와 불교에 심취해 이와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앞서 『소설 원호』 등을 펴냈다.



세계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박정호 지음, 반니)=네덜란드는 국토가 작은 데도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 자국에서 나지 않는 카카오를 대량 수입해 외국에 재판매하거나 가공해 수출하는 등 상업이 발달한 덕분이다. 이를 비롯해 각각의 경제적 특징과 강점·약점에 초점 맞춰 전 세계 30개 국가·지역의 역사와 현재, 미래 전망을 전한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라이프치히? 4년 전 대답은 축구팀, 지금은 바흐쇼

(바흐가 생애 대부분 보낸 곳)

입사 27년 차인 이재후(54) KBS 아나운서는 스포츠 중계로 이름을 알렸다. 1999년 축구 중계를 시작했고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부터는 폐회식을 맡으면서 개·폐막식 중계의 아이콘이 됐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폐막식에서 “비장애인 올림픽을 마칩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화제가 됐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개·폐막식을 비롯해 5개 종목 중계를 담당할 캐스터였다.

파리에서 양궁, 역도, 근대5종, 아티스틱 스위밍, 마라톤 수업을 중계했던 그가 서울에 돌아와 맡은 일은 클래식 음악 방송이다. 이재후 아나운서는 2020년부터 KBS 1FM(클래식 FM, 93.1MHz)의 ‘출발 FM과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7~9시 프로그램이다. 그가 진행한 올림픽 개·폐막식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클래식 음악 방송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KBS 1FM에 따르면 ‘출발’은 1FM의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청취율(7월 9~22일 기준)을 기록했다. 클래식 쿼츠를 출제하면 청취자 2000여명이 응모하는 인



클래식 방송 진행 이재후 아나운서 스포츠 전문 캐스터서 성공적 변신 처음 접한 클래식, 암호처럼 어려워 운동 중계하듯 교본 찾아 공부해

“클래식 음악 방송을 진행할 때 그 음악처럼 말하게 된다”는 이재후 KBS 아나운서는 “삶도 따라서 여유로워졌다”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기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만난 이재후 아나운서는 “처음에는 떠맡듯이 진행을 시작했다”고 했다. “클래식은 전혀 듣지도 않았고, 작품 이름들이 쓰여있는 큐시트는 암호 같았다.” 4년 전 클래식이 얼마나 생소

했는지에 대해 그는 또 이런 비유를 들었다. “라이프치히 하면 축구팀만 떠올랐다.” 지금은 무엇이 떠오를까. “당연히 (라이프치히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던) 바흐다.” 지금 그는 대본에 없는 클래식 음악 관련 내용도 즉흥으로 전할 정도의 진행자가 됐다.

여기에는 성실한 노력이 있었다. “일단 작곡가, 곡명, 형식을 다 써놓고 공부했다.” 작곡가와 연주자 등을 공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1만2000여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다. 클래식을 전혀 모르던 ‘클말뚝’의 성장 배경에는 공부의 힘이 컸다. 무엇보다 많이 들었

다. “악기별, 작곡가별, 시대별로 들어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사도 알아야 겠더라.” 그때부터 책을 읽었다.

음악에 접근한 방식은 스포츠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도를 중계할 때면 역도 지도자 교본을 찾아보고 종이 한 장에 내용을 정리한다. 그걸 해설위원과 공유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찾아 나름대로 요약정리 해놓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그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4년을 “풍요로워졌던 시기”라고 요약했다.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작곡가가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을 떠올린다. 늘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의 세계와 달리 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돌보는 점이 좋다.”

언젠가 올 마지막 방송에 대한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다. “답답하게 녹음 방송으로 마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었다. “내가 클래식 진행을 할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있고 마지막까지 그럴 것 같기 때문이다.” 김호정 기자

‘비틀즈’ 속편 36년만에 개봉

귀신 보는 영매사와 딸의 소동 그려 위노나 라이더 등 ‘호러퀸’ 들 뭉쳐

올블랙 의상과 참백한 스모키 화장법,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엄격한 인생관 등 영국의 반항적 청년 문화인 고스(Goth) 족을 할리우드 영화에 접목시킨 대표 주자로 팀 버튼(66) 감독이 꼽힌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개막한 제 81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된 ‘비틀즈 비틀즈’가 지난 4일 개봉했다. ‘비틀즈’의 36년 만의 속편으로, 위노나 라이더(52)와 제나 오르테가(21)가 모녀로 호흡을 맞췄다. ‘비틀즈’는 제작비 1500만 달러(약 200억원)로 전세계 7370만 달러(약 987억원)의 대박 흥행을 거뒀다.

1편은 신혼부부(알렉 볼드윈·지나 데이비스) 유령의 집에 이사온 재혼 가족이 저승세계의 인간 퇴치 전문가 비틀즈(마이클 키튼)로 인해 골탕먹는 내용. 속편에선 전편에서 비틀즈 소동에 휘말렸던 재혼 가족의 외동딸 리디아(위노나 라이더)가 유명한 영매사 싱글맘이 되어 돌아왔다. 아버지

팀 버튼의 발칙한 상상력, 살아있네~



팀 버튼 감독의 ‘비틀즈 비틀즈’에는 1편(1988)에 이어 위노나 라이더(오른쪽 두번째)가 출연해 발칙한 상상력을 이어간다. [AP=연합뉴스]

의 장례식날 10대 딸 아스트리드(제나 오르테가)가 저세상에 잡혀가자, 또 한번 비틀즈를 소환하게 된다.

팀 버튼의 호러 판타지 드라마 ‘웬즈데이 시즌1’(2022)의 주역 제나 오르테가, 오랜 공백 끝에 SF 호러 ‘기묘한 이야기’(2016~)로 재기에 성공한 위노나 라이더 등 넷플릭스 최고 호러 여왕들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

“팀 버튼의 집에서 오르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린 시절 나를 보는 듯했다.”(라이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읽는 것 같았다.”(오르테가) 영화사 사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한 말이다.

속편은 컴퓨터그래픽(CG)을 최소화하고, 사후 세계 대기실 등 70여개의 세트를 실제로 짓는 등 1억 달러를 들

인 제작 규모를 자랑하지만, 관객의 시선을 끄는 건 돌아온 원년 멤버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알파세대 오르테가의 열연이다. 아스트리드에게 ‘웬즈데이’에서처럼 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을 풀어놓는 살벌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비틀즈 비틀즈’에서 그는 하이틴 무비의 전형적인 뚱뚱한 아웃사

이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팀 버튼은 미 매체 콜라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르테가는 ‘비틀즈 비틀즈’ 세계로 가는 입구이자, 현실에 발붙이게 해주는 닷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1편 이후 팀 버튼과 ‘배트맨’ 시리즈로 급부상한 마이클 키튼은 세월을 잊은 듯한 비틀즈 특유의 웃음을 선사한다.

‘나홀로 집에’ 시리즈의 엄마 역할로 유명한 캐서린 오히라도 남편의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4차원 캐릭터 리디아로 돌아왔다. 리디아의 아버지 찰스는 상어에 물어 뜯겨 어깨 윗부분이 없는 유령의 모습으로 처리했다. 이 역할의 배우 제프리 존스가 2003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후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비틀즈 비틀즈’의 로튼토마토(비평 전문 사이트) 언론·평단 평점은 1편(82%)보다 다소 낮은 76%지만, 관객이 매기는 팝콘 지수는 1편(82%)보다 높은 87%다. 뉴욕포스트는 “상상력은 폭발적이나, 스토리가 부족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고작은 아니지만, 여전히 눈부신 광기를 선보인다”고 평가했다. 나원정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케어 크레딧**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눈빛만 봐도 통하는 정·김 콤비

(정호원·김승겸)

보치아 신화 함께 쓰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둘이서 같이 하면 힘이 솟는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장애인 선수들이 아내와 어머니, 친구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경기력을 뽑냈다.

장애인 스포츠 최고의 축제인 패럴림픽(Paralympic)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레지아(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을 합친 말이다. 처음으로 열린 장애인 경기대회에 척수마비 선수들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란히'란 뜻의 접두어 '파라(para)'로 사용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올림픽과 나란히 열린다는 뜻을 담았다.

패럴림픽에서는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서는 경기들이 있다.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신화를 일군 보치아가 대표적이다. 보치아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고안됐다. 규칙은 컬링과 비슷하다. 흰색 표적구를 던진 뒤 두 선수가 청색구와 적색구를 번갈아 던져 가깝게 위치하는 공의 개수만큼 득점한다.

보치아 공 굴리기 돕고 작전도 상의
정호원(38·강원도장애인체육회)은 한국 보치아의 전설이다. 2008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5회 연속 출전해 네 번이나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BC3 등급 개인전에서 세계랭킹 1위 대니얼 미셸(호주)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정호원의 곁엔 항상 동갑내기 김승겸 코치가 있다. 정호원은 경기 뒤 "최근에 성적이 나오지 않아 김승겸

코치가 애를 참 많이 썼다. 그 덕에 경기력이 올라왔다"며 김 코치에게 공을 돌렸다.

BC3 등급은 코치가 경기 보조선수로 규정되어 있어 선수로 인정된다. 그래서 경기 파트너에게도 메달을 수여한다. 정호원과 함께 시상대에 오른 김승겸 코치는 "늘 종합대회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꿈꿨다. 개인전 금메달로 처음 시상대에 섰는데, 마냥 기쁘고,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김승겸 코치가 속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던 시절 만나 14년간 호흡을 맞추고 있다. 정호원은 직접 손으로 공을 굴리기 힘들기 때문에 흡통에 올린 공을 입에 문 스틱으로 밀어 굴린다. 흡통을 잡고 공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김 코치가 맡는다. 어떤 작전을 쓸 지도 함께 상의한다.

뇌병변 장애인 정호원은 비장애인 처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김승겸 코치와는 오랜 시간 지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코치는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호원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 때가 많다. 눈빛만 봐도 알고, 입모양으로도 유추한다"고 했다. 경기장 밖에서도 둘은 좋은 친구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이다.

트라이애슬론에 출전해 양말 없이 파리 센강을 헤엄친 김황태의 곁엔 아내 김진희씨가 있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사이클-크로스컨트리 순서로 경기를 치른다. 장비를 교체하고 환복

하는 시간(트랜지션)까지 기록에 포함된다. 이때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핸들러다. 김황태는 트라이애슬론을 시작한 이래 쪽 아내에게 핸들러를 맡겼다.

5000m 이상 달리기 가이드 2명 필요
부부는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없이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바꾸는 연습을 했다. 김황태는 "트랜지션에서 5초 늦어지면 다른 데서 만회해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희씨는 "처음에 핸들러를 해보는 게 어렵다고 권유받았다. 같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황태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하루에 열댓 번 다룰 때도 있다. 하지만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화해한다"고 했다.

첫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사격 서훈태(39·코오롱)는 특전사 복무 중 낙상 사고로 척수 장애를 얻었다.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실탄을 장전하는 로더가 필요하다. 서훈태의 로더는 어머니 임정애씨다. 메달을 따낸 뒤 임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다.

사격 국가대표 이철재(42·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는 아내 강혜경씨가 로더로 나섰다. 가슴 아래는 감각이 없는 그를 위해 강씨가 경기 진행을 돕는다. 이철재는 공기소총 복사 본선 3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7위를 차지했다. 아내 강씨가 눈물을 짓자, 이철재도 목멘 소리로 "아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파리=김효경 기자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정호원(왼쪽)과 김승겸 코치가 시상식에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일본 히라타, 신한동해오픈 우승... 한국 김민규는 4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와 아시안 투어, 일본프로골프(JGTO)가 공동 주관하는 제40회 신한동해오픈의 우승 트로피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다. 히라타 겐세이(24·일본)가 이 대회 역대 12번째 외국인 챔피언이자 4번째 일본인 우승자가 됐다.

히라타는 8일 인천 영종도 클럽72 오션 코스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2개로 6타를 줄여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정상을 밟았다. 우승 상금은 2억5200만원. 히라타는 또 KPGA 투어 5년간 시드와 아시안 투어 및 JGTO 2년 시드를 부상으로 받았다. 준우승은 합계 21언더파의 트래비스 스미스(30·호주)가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김민규(23)가 17언더파 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날 경기 초반 주도권은 스미스가 잡았다. 1번 홀(파4)부터 7번 홀(파5)까지 7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합계 20

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스미스는 8번 홀(파3)에서 파를 기록한 뒤 파4 9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KPGA 투어 9홀 역대 최소타 타이 기록(28타)을 세웠다.

그러나 히라타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5번 홀(파5) 이글을 포함해 전반에만 5타를 줄였고, 파4 11번 홀에서 4m 거리의 내리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22언더파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어 13번 홀(파5)과 15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일본 오사카 태생의 히라타는 드라이브샷 평균 거리가 290.64야드(41위)로 장타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62.54%(11위)의 페어웨이 안착률과 72.00%(4위)의 그린 적중률을 앞세워 지난해 JGTO에서 2승을 거뒀다. 올 시즌에는 이번 대회 포함 3승을 달성했다.

신한동해오픈은 고국을 그리워하던 재일교포들이 1981년 뜻을 모아 창설했다. 2022년 이 대회를 제패한 히가 카즈키(29·일본) 이후 다시 우승 트로피를 일본으로 가져간 히라타는 "라운

드 내내 응원해주신 한국의 갤러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욱 멋지게 활약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골프장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B금융스타챔피언십에선 루키 유현조(19)가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향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던 유현조는 마수걸이 우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신인왕 수상을 사실상 예약했다. **고봉준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화 2.55/차고 2 **Many Upgraded (자방. HVAC. 워터허터. Bathrooms)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	---	--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황실 돈으로 세운 보성학교, 최대 항일 조직 천도교가 인수

1904년 2월 6일 일본이 일으킨 러일전쟁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10년 전 청일전쟁 때보다 몇 배나 되는 병력(109만 중 전쟁 투입 30~50만)과 남·서해를 누비는 대형 군함의 위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한제국은 제3국인에도 전쟁터가 되고 사전에 포고한 전시 중립국 선언은 침략군의 군화에 짓밟혀 무용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

일본제국은 1905년 5월 전승 후 전시 병력을 한반도에 잔류시켜 그 무력으로 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았다. 고종은 1906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조약의 불법 강제를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만국평화회의는 특정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일본제국의 침략 극복 문제는 고스란히 한민족 자신의 몫이었다. 여러 형태의 노력 가운데 동학·천도교가 국가원수 고종에게 보인 무언의 지원 관계는 국민의 성장이란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보성전문학교 건물, 2 보성전문학교의 황실 문장 오얏꽃을 사용한 교표, 3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



황실 특파유학생 출신들 3·1운동 주도

서울에 진입한 일본군은 황제의 최측근 이용익, 길영수, 이학균, 현상건 등을 수배했다. 길·현·이 3인은 산동반도 취부로 피하였으나 이용익은 일본군에 잡혔다. 일본군은 그를 군함에 태워 일본으로 데려가서 '만유(漫遊)'란 이름으로 이곳저곳 돌리보게 했다. 이용익은 교육시설을 선호하여 살피고 12월에 귀국하였다. 그가 돌아오기 두 달 전 황제는 '황실 특파유학생' 50명을 선발해 일본으로 보냈다. 분노를 삼키면서 일본의 위세를 살펴 배울 것은 배워 내일을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귀국한 이용익은 황제에게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을 건의하였다. 황제와 이용익의 뜻은 공교롭게 교육 육성에 집중했다. 황제가 이용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운 보성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되었고, 황실 특파유학생 50명 중 최남선, 최린, 조용은(조소양), 한상원 등은 15년 뒤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다.

1895년 2월 '교육조령' 반포 후 법관양성소, 의학교, 외국어학교, 광산학교 등 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를 세웠으나 여러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1905년 5월 개교한 보성학교는 법률·이재(경제)·농학·상학·공학 등 5개 전문학과를 두고 50~80명을 뽑아 가르쳤다. 대학으로 손색이 없었다. 도서관과 출판사를 시설하고 1906년 9월에는 산하에 중학교도 개설했다. 다만 일본 측의 황실에 대한 심한 견제로 이용익을 설립자로 내세워야 했다. 모든 비용이 황실에서 나왔으나 사립학교가 되어야 했다. 고종은 황실 사립들에게도 학교를 세우게 하고

각 고을에 소학교 설립 모금을 위한 종자돈으로 소액의 하사금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용익은 1906년 다른 밀명으로 유럽으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운동 세력 근거지를 방문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거기서 사망하였다. 보성학교는 손자 이종호에게 맡겨져 운영되다가 1910년 12월 천도교 대 교주 손병희가 인수했다. 황제가 특별한 뜻으로 세운 대학을 천도교가 인수한 것은 예상일이 아니었다.

손병희는 1894년 후반기 동학 농민군 항쟁 때 북접(北接, 충청도) 소속으로 남접의 전봉준과 함께 일본군, 김홍집 괴뢰 내각이 보낸 관군 등과 맞서 싸우다 패하여 원산, 관서 지방으로 피신했다. 그는 무너진 교단 재건과 포교 활동에 매진하여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신임을 받아 1897년 제3대 교주가 되었다. 이듬해 최시형이 처형된 뒤 교주 역할을 행하면서 교단의 전통적 운영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오세창, 권동진, 박영효, 조희연 등 동지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동학을 근대적 종교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손병희는 이를 교단 재건의 기회로 삼아 진보회(進歩會)를 결성하여 '단발 흡의 운동'을 벌였다. 국내의 이용구가 나서 교도들이 '상투를 자르고 검은 옷을 입고' 민족 개화를 표방하는 운동을 벌이게 했다. 20만 명의 동학도들이 참여하여 단발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용구가 일진회로 일본에 부역함으로써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1905년 12월 1일 자 『제국신문』 1면 머리에 손병희가 천도교 '천도주(天道主)' 자격으로 특별한 광고를 냈다. 천도교는 내년 2월부터 교당을

짓는다는 광고였다.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첫 대의 광고였다. 손병희는 광고에서 모든 종교는 자유 신앙인 것이 만국 통례이며, 교당을 짓는 것도 자유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종교단체의 일반 예를 따르니 탄압을 가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천도교는 근대적 종교의식으로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時日: 매주 일요일 집회) 성미(誠米: 식량의 10분의 1을 아껴 교회에 내기) 기도 등 다섯 가지 의식을 정해 신도들이 지키도록 했다. 천도교는 갈수록 신도가 늘어 1910년대에 300만을 헤아렸다. 성미 제도는 교단의 재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천도교는 나라 안 최대 조직이 되었다.

동학·천도교 근왕 정신으로 대일 항쟁

손병희는 1906년 1월 귀국 후 1895년 2월 고종이 내린 '교육조령'의 목표에 이바지하려는 듯 민중 계몽과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나라 주인이 된 서민 대중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였다. 1904년 진보회 강령의 1항은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학 교단이 1894년 봉기 때 보였던 근왕(勤王) 정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다짐이었다. 손병희는 『대한민보』, 『대한제국 민력회(民力會)』 등 '민(民)'을 앞세운 문화 운동을 주관하거나 지원했다.

1916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본국 총리대신으로 영전했다. 그는 총리로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별한 동향에 관한 보고에 접했다. 1915년부터 세계대전이 끝나면 식민지 약소국을

모두 해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윌슨 대통령의 기획은 1918년 1월 연두 교서에서 '민족자결주의'로 표명되었다. 미국에서 오는 정보에 접할 때마다 총리 데라우치 머릿속에는 '이태왕(古宗)'이 1907년 6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처럼 파리 강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독립을 요청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 때 육군 대신으로 보고받았던 기밀 정보도 생각이 났다. 조선인 밀정을 한인 사회에 투입해 얻은 특급 정보는 서울의 황제가 사건의 핵심 배후라고 했다. 데라우치는 후임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만약 '이태왕'에게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독살하라고 지시했다. 1919년 1월 21일 아침 고종이 급서하자 '독살설'이 삽시간에 퍼졌다. 윤치호는 고종은 온몸이 붓고 입안과 식도가 타서 검은색이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일기(영문)'에 기록했다. (이태진, 2009)

고종 황제 국장을 계기로 일어난 3·1 독립 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시위를 맡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선언서를 준비했다.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 불교 2인 등 33인이 민족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천도교 대표 15인 가운데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손병희, 이종훈, 박예환, 홍기조, 흥병기 등 9인이 1894년 2차 항일 봉기 때 농민군을 지휘한 접주 출신이었다. (유바다, 2019) 동학교도와 군주 간에 오간 무언의 신뢰와 성원은 25년 세월에도 변함이 없었다.

1922년 손병희가 사망하면서 천도교는 교단 운영에 위기를 맞았다. 최린 등 일본 유학 출신들이 '타협적' 문화 운동을 벌이면서 동학 출신들은 일선에서 밀렸다. 손병희로부터 4대 교주로 지명받았던 박인호를 중심으로 동학 출신들이 뭉쳐 신구파의 대립이 일어났다. 동학 계통의 구파는 1926년 순종 황제 국장을 계기로 일어난 6·10 만세운동, 1927년의 신간회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천도교의 항일 운동은 황실의 의친왕과 협력하면서 1929년 구파의 청년동맹 조직 운동이 사전에 발각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구파를 지지하던 많은 신도는 보천교 등 이른바 '유사 종교' 형태로 민간 속에 잠입하여 항일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국가는 선출제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꾸어 성립한 경우도 많다. 동학·천도교는 시종 근왕 정신으로 대일 항쟁을 벌여 당당한 근대 국민국가 국민의 모습을 보였다. 계급투쟁 사관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귀중한 역사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책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차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차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차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차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차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차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차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차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차3</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차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차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차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차1</p>
--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식스센스

카툰빌레이 THE SIXTH SENSE 금주의주제 인터뷰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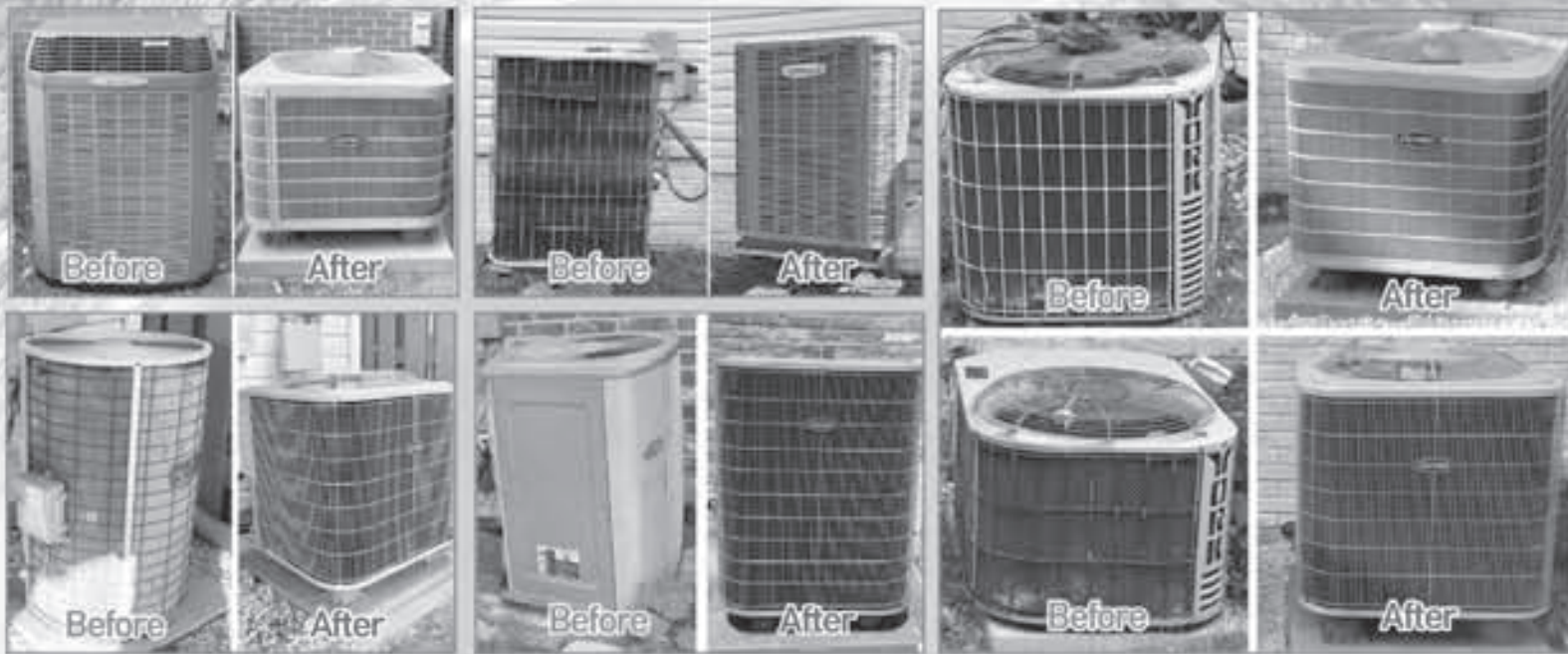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9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정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WE ARE HIRING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9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몰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폴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S STAR 소목(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 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대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스리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델.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 / 취업비자 / 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몰라자 마켓 분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된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렌지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렌지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차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아·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렌지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렌지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렌지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스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쉬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치힐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렌트
\$2,300 방3개 화장실 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방1/육실 화장실/인터넷/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매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9일 월요일

구인 / 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계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자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방렌트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룸용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썬아웃
인테리어,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룸용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옆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썬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뷰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 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 무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틱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 컨트롤, 가동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콜러, 아이스머신, 덱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시스템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플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잉/전등/화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 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 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동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
상점, 가동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HD Plus Construction
밀집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펫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구독: 703-281-9660, 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ve: Hi Julie, Where are you going?
 데이브: 안녕 줄리, 어디 가는 거야?
 Julie: I'm off to feed the meter.
 줄리: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으러 가.
 Dave: Why don't you park in the parking lot?
 데이브: 주차장에 세우지 그랬어?
 Julie: The parking lot is full.
 줄리: 주차장이 꽉 찼어.
 Dave: I'll walk with you. So how do you like working here?

데이브: 같이 가자. 그래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
 Julie: Well, it's only been one week but everyone has been so nice and helpful.
 줄리: 글썄, 일한 지 1주일 밖에 안됐지만 다들 너무 좋고 잘 도와줘.
 Dave: That's good.
 데이브: 잘 됐다.
 Julie: Working here beats working at my other job.
 줄리: 여기서 일하는 게 전에 일하던 곳보다 훨씬 좋아.
 Dave: Was it bad there?

(one) is off to (a particular place); (누가 특정한 곳에) 가다
 (It's one-thirty and Julie is leaving work while Dave is coming back from lunch...)
 (오후 1시 30분. 줄리는 사무실을 나가고 데이브는 점심 식사 뒤 사무실로 돌아온다...)

데이브: 거긴 별로였어?
 Julie: It was a zoo. It was so noisy with no air conditioning in the summer and no heat in the winter.
 줄리: 난장판이었어. 여름엔 에어컨도 없고 겨울엔 난방기도 없이 너무 시끄러웠어.
 기억할만한 표현
 ▶ feed the meter: (구어체)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다.
 "I have to feed the meter in ten minutes." (10분 있다가 주차 미터기에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

▶ (something) beats (something):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
 "Fishing beats working any day." (언제든 일하는 것보다 낚시가 훨씬 좋습니다.)
 ▶ (a place) is a zoo: (어떤 장소가) 난장판이다.
 "The classroom was a zoo. The students were screaming and jumping everywhere." (교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사방에서 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산이나 숲 따위에 난 폭이 좁은 호젓한 길 (3)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심□□ (5) 아직 코뚜레를 끼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 (7)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 (9)계통, 품종, 성질이 다른 암수의 교배 (11)충성을 다하여 나라가 베푼 은혜에 보답함. □□보□ (13)손이나 발에 생기는 사마귀 비슷한 굳은살 (15)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죠 (16)우유 속에 있는 카세인을 응고하여 발효시킨 식품. 건락. 자, 사진 찍습니다. 다 같이 ~ (17)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18)몽땅하고 크게 생긴 코 (20)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 (22)산과 내를 잘 관리하고 돌봐서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함 (24)우리나라 따위에 수증기가 허얇게 얼어붙은 것 (26)장사하는 사람 (28)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푹 삶아서 만든 국 (30)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 우리들 세상 (31)산울림

세로열쇠

(1)칠월 칠석날 저녁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다는 다리 (2)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첫머리.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 (3)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음. □□□천 (4)아버지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 (6)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 방탄소년단의 미국 8개 도시 콘서트 가 사실상 완전 ~되었다 (8)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도 (10)여러 가지 지저분한 티나 흙. ~ 하나 없이 맑고 백옥 같은 얼굴 (12)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14)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김 부장은 ~도 없이 제멋대로 말했다 (18)술과 안주를 차려 놓은 상 (19)설날의 전날 곧 선달 그믐날 (21)자기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봄. ~이 없는 삶은 발전이 없다 (23)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끈 응덩이. 헤어나기 힘든 곤욕 (25)값을 깎는 일. ~를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오지요 (27)상반신은 사람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다는 상상의 바다 동물 (29)제사 때 쓰는 국과 밥

스도쿠

	5		6					8
2	1					4	6	
7		8	3			5		
3			5	9	2		8	
9		6				3	4	5
		5		6	3	9		
5					8		1	9
						7		
			9					
			7				2	4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2	8	5	3	7	1	6	9
3	5	7	9	1	6	2	4	8
6	1	9	8	4	2	7	3	5
2	7	6	3	9	4	5	8	1
5	4	3	7	8	1	9	2	6
9	8	1	2	9	5	4	7	3
1	6	5	4	2	3	8	9	7
7	9	4	6	5	8	3	1	2
8	3	2	1	7	9	6	5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O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구인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세렌트, 좋은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지역
(213)249-1893 샘킴

델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희택 사(학)위(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 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핵심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휴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특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SOLD

특점 FAIRFAX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SOLD

특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SOLD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